

# 2017년 통계로 본 서울의 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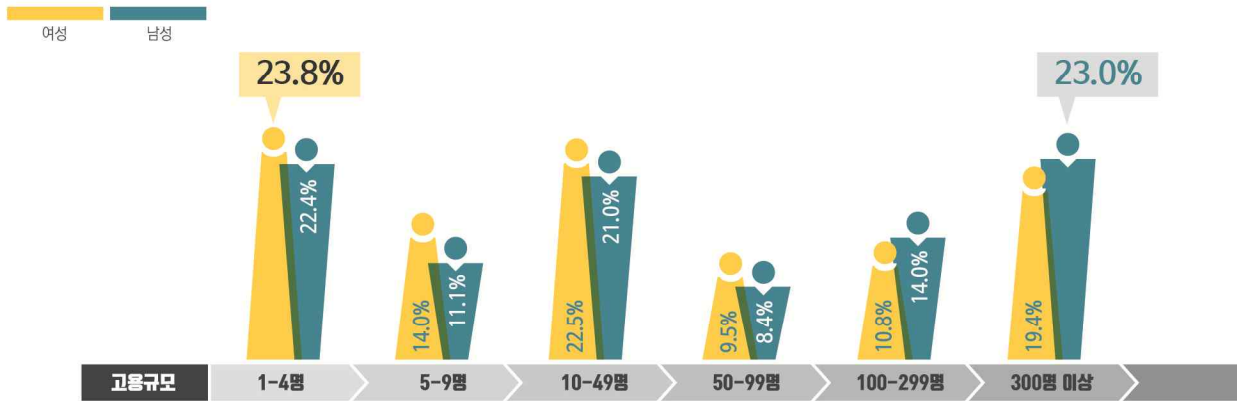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팀  
(이철, 김재민, 신태중)

2017. 12

# 서울의 산업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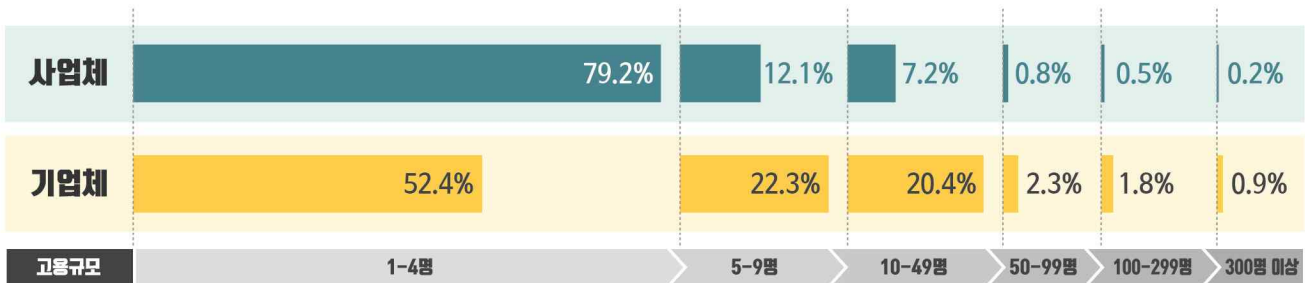
## 남녀 사업체 종사자 비교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5], 국가통계포털(KOSIS)



## 사업체와 기업체 구성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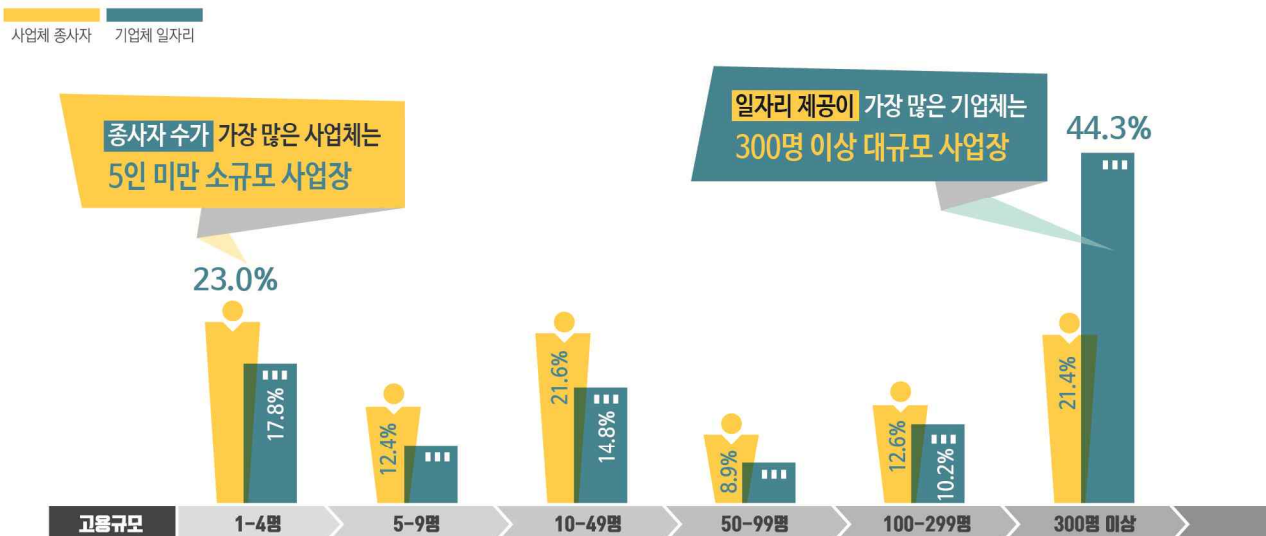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5], 국가통계포털(KOSIS) / 통계청 [2015년 일자리행정통계 보도자료, 2016.12.7]



사업체 : 1개 기업 소속 5개 지점을 5개 업체로 판단  
 기업체 : 1개 기업 소속 5개 지점을 1개 업체로 판단

## 사업체 종사자 & 기업체 일자리 비교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5], 국가통계포털(KOSIS) / 통계청 [2015년 기준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잠정결과, 2016.12.16]





# 서울의 취약계층노동자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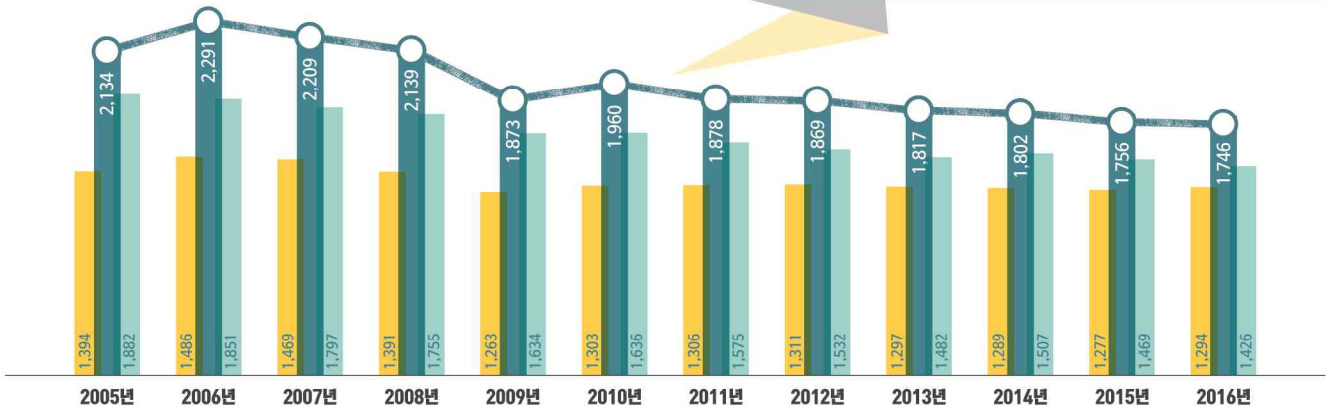
## 서울의 비정규직 규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 통계청 [8월 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 년도]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근로형태별부가조사 분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기준 서울의 비정규직은 2016년 174만 6천명(44.3%)으로 추정되며,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임시일용직은 142만 6천명(35.3%), 근로형태별부가조사 기준 비정규직은 123만 4천명(32.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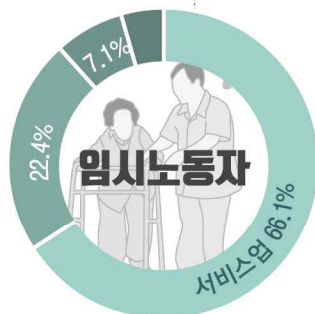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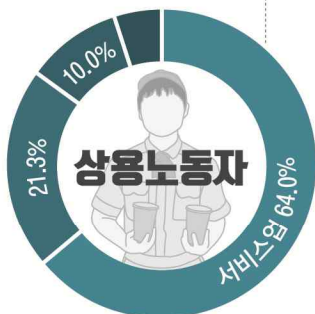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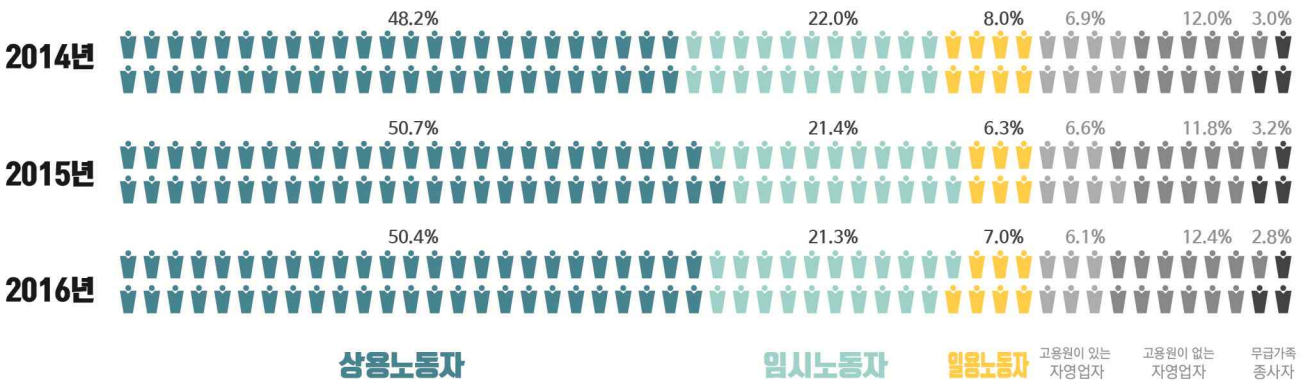
단위: 천명  
 비정규직 추정치    경찰조사 임시일용직    경찰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비정규직

서울 전체 비정규직 **174만 6천 명**



## 종사상 지위별 비율과 산업분포

자료 : 통계청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각 년도],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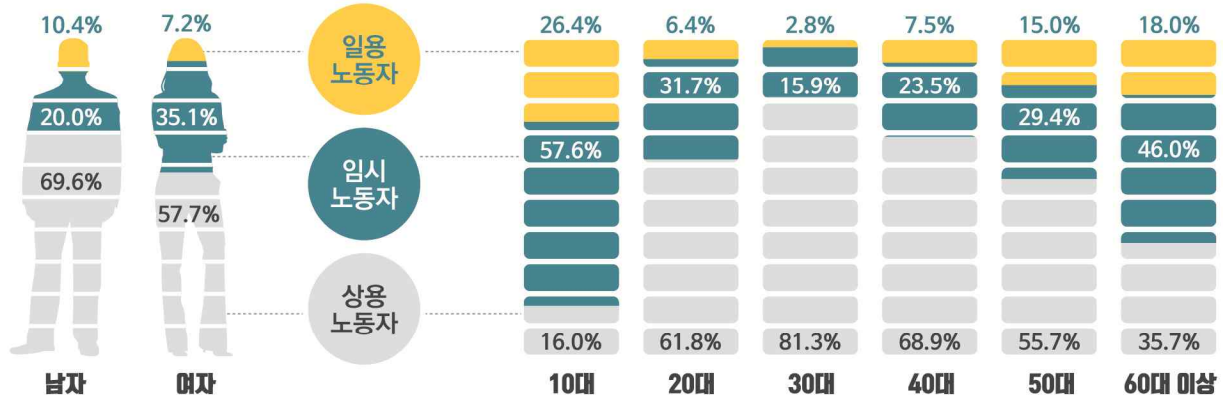


## 성별·연령별로 보는 취약계층 노동자 비율

자료 :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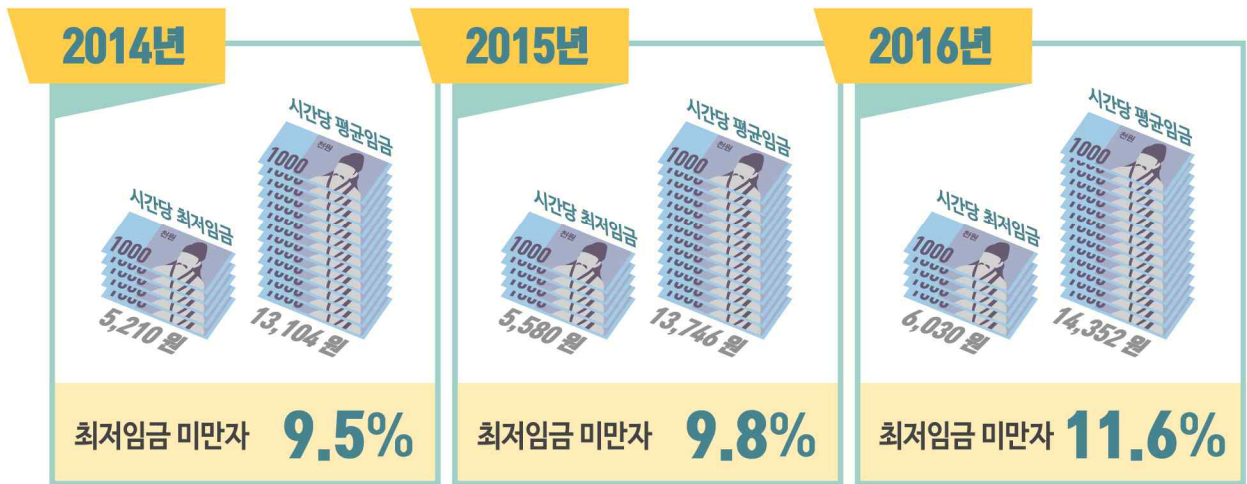
성별 취약노동자(임시일용직) 비율은 여성이 42.4%로 남성의 30.4%보다 높다.

연령별 취약노동자(임시일용직) 비율은 10대(84%)와 60대 이상(64.3%)이 높다.



## 평균임금과 최저임금 미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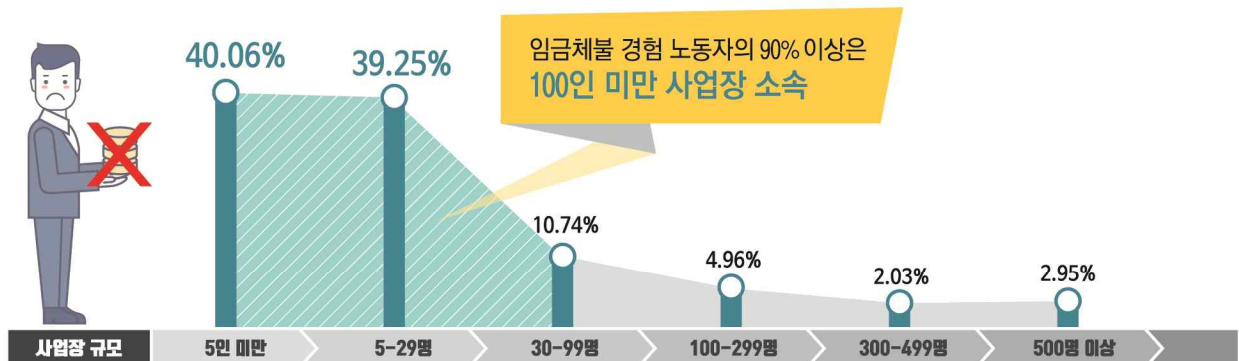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



(서울지역 기준 : 응답자의 거주지 기준)

## 임금체불 경험자의 사업장 규모별 분포

자료 :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



# 목 차

<b>I. 서울의 산업구조</b> .....	<b>1</b>
1. 사업체와 종사자 .....	1
2. 사업체 규모와 기업체 규모 .....	5
3. 사업체 종사자와 기업체 일자리 .....	8
<b>II. 서울의 고용구조</b> .....	<b>10</b>
1. 경제활동인구 .....	10
2. 고용률과 실업률 .....	14
<b>III. 취약계층노동자 구조</b> .....	<b>19</b>
1. 비정규직 노동자 .....	19
2. 취약계층(임시일용직) 노동자 .....	21
3. 취약 노동자와 불평등 .....	25

## <표 차례>

<b>표 Ⅲ-1</b> 서울지역 임금노동자 평균임금과 최저임금 미만 비율 .....	25
<b>표 Ⅲ-2</b> 서울지역 임금노동자의 종사상지위별, 성별, 연령별 최저임금 미만 비율 .....	26

## <그림 차례>

<b>그림 I-1</b> 연도별 사업체 수와 증가율 비교 .....	1
<b>그림 I-2</b> 연도별 종사자 수와 증가율 비교 .....	2

■ 그림 I-3 ■ 연도별·성별 종사자 수와 전체종사자 중 여성종사자 비율 .....	2
■ 그림 I-4 ■ 연도별·산업별 사업체 수와 2013년 대비 2015년 사업체 증감률 .....	3
■ 그림 I-5 ■ 산업별·성별 종사자수와 2013년 대비 2015년 종사자 증감률 .....	4
■ 그림 I-6 ■ 산업별·성별 종사자 수와 여성종사자 비율 .....	4
■ 그림 I-7 ■ 서울지역 연도별·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구성비 .....	5
■ 그림 I-8 ■ 지역별·종사자 규모별 종사자 구성비 비교 .....	6
■ 그림 I-9 ■ 서울지역 종사자 규모별·성별 종사자 구성비 비교 .....	6
■ 그림 I-10 ■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와 기업체 구성비 비교 .....	7
■ 그림 I-11 ■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종사자 구성비와 기업체 일자리 구성비 비교 .....	9
■ 그림 II-1 ■ 서울시, 전국 경제활동인구 .....	11
■ 그림 II-2 ■ 서울시, 전국 비경제활동인구 .....	11
■ 그림 II-3 ■ 서울시 성별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	12
■ 그림 II-4 ■ 서울시, 전국 경제활동참가율 .....	13
■ 그림 II-5 ■ 서울시, 전국 고용률 .....	14
■ 그림 II-6 ■ 서울시, 전국 실업률 .....	14
■ 그림 II-7 ■ 서울시, 전국 청년실업률과 전체실업률 .....	15
■ 그림 II-8 ■ 서울시, 전국 고용보조지표 .....	16
■ 그림 II-9 ■ 서울시, 전국 청년 고용보조지표 .....	18
■ 그림 III-1 ■ 전국 비정규직 규모와 비율 .....	19
■ 그림 III-2 ■ 서울 비정규직 규모 .....	20
■ 그림 III-3 ■ 통계청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비정규직 노동시간과 임금 비교 .....	21
■ 그림 III-4 ■ 서울지역 종사상지위별 규모 .....	22
■ 그림 III-5 ■ 서울지역 종사상지위별 비율 .....	22
■ 그림 III-6 ■ 산업별 종사자 비율 .....	23
■ 그림 III-7 ■ 종사상지위별 산업 분포 .....	23
■ 그림 III-8 ■ 직업별 종사자 비율 .....	24
■ 그림 III-9 ■ 성별 종사자 비율 .....	24
■ 그림 III-10 ■ 연령별 종사자 비율 .....	25

■ 그림 Ⅲ-11 ■ 서울지역 임금노동자의 종사상지위별, 성별, 연령별 최저임금 미만 비율 .....	26
■ 그림 Ⅲ-12 ■ 전국, 서울의 임금 5분위 배율 .....	27
■ 그림 Ⅲ-13 ■ 서울지역 연도별 임금체불 현황 .....	28
■ 그림 Ⅲ-14 ■ 서울지역 임금체불 경험자 비율 및 임금체불 발생 사업장 비율 .....	28
■ 그림 Ⅲ-15 ■ 산업별 1인당 체불임금액 .....	29
■ 그림 Ⅲ-16 ■ 산업별 체불금액 비중 : 2016년 기준 .....	29
■ 그림 Ⅲ-17 ■ 사업장 규모별 1인당 체불임금액 .....	30
■ 그림 Ⅲ-18 ■ 사업장 규모별 체불임금 근로자 비중 : 2016년 기준 .....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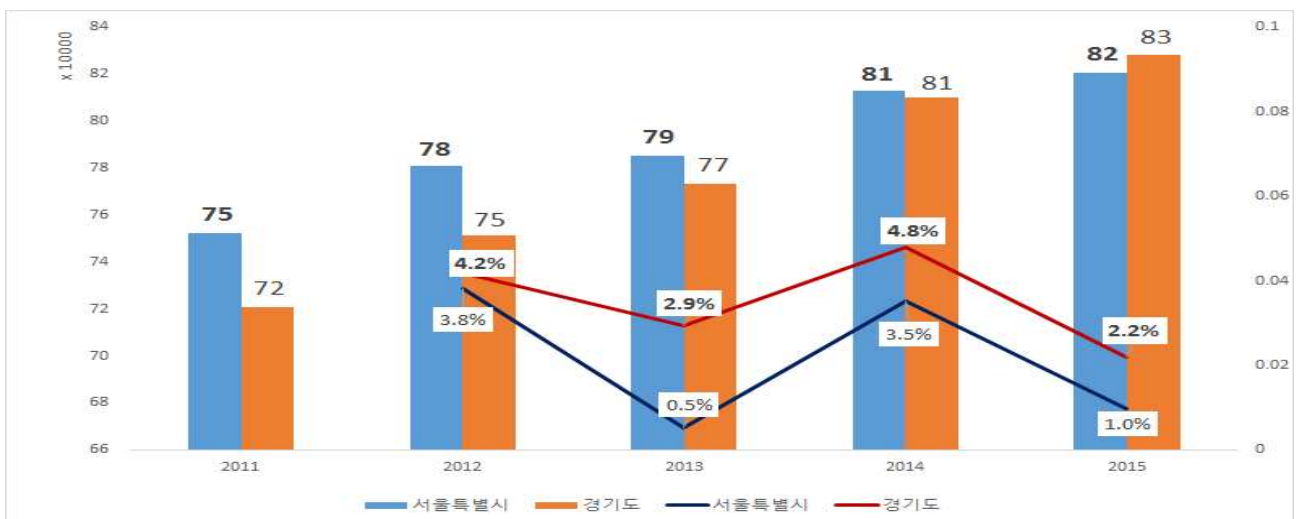
# 1. 서울의 산업구조

- 2015년 현재 서울의 사업체 수는 82만 7천 개소로 전국 2위, 서울의 종사자 수는 5,108천명으로 전국 1위
- 2015년 현재 서울의 종사자 중 여성 종사자는 43.5%(222만 명) 차지
- 성별 대비 남성고용 집중 업종은 건설업(87.0%), 여성고용 집중 업종은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78.1%)
- 기업체 조사를 기준으로 할 때, 서울지역 기업체 중 5인 미만 기업 비중은 52.4%로 나타남. 그에 비해 서울지역 기업체 일자리 중 5인 미만 기업체 일자리 비중은 23.0%인 반면에 서울지역 300인 이상 기업체 일자리 비중은 무려 44.3%인 것으로 추정됨

## 1. 사업체와 종사자

- 서울의 사업체 수는 82만 7천 개소(2015년 기준)로 전국에서 경기도에 이어 2위
  - 2015년 현재 경기도(827,983개소, 전국 1위)의 사업체수가 서울의 사업체수(820,658개소, 전국 2위)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남
  - 2014년도 대비 2015년도 서울시 사업체 증가율은 1.0%로, 경기도의 사업체 증가율(2.2%)에 비해 1.2%p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1】 연도별 사업체 수와 증가율 비교 (단위 : 만 개소, 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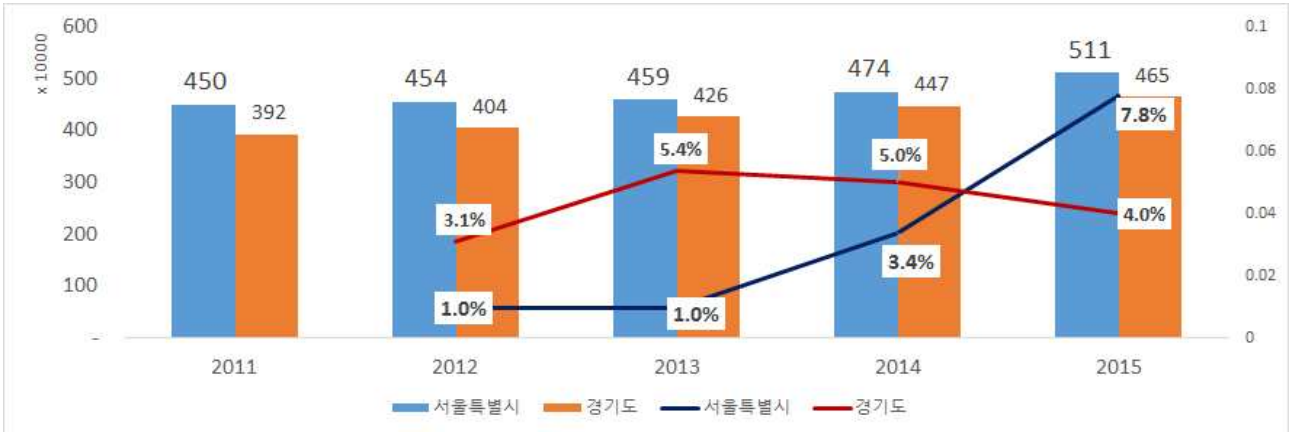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년도], 국가통계포털(KOSIS)

□ 서울의 종사자 수는 510만 8천명(2015년 기준)으로 전국 최대

- 2015년 현재 서울지역 종사자 수(5,108,828명)는 전국에서 가장 많음(2위 경기도 4,650,266명)
- 2015년 종사자 수 증가율을 살펴보면 서울의 종사자수 증가율은 7.8%로 경기도의 종사자 수 증가율(4.0%)을 추월하였음. 그러나 2011년 대비 2015년 현재 서울지역 종사자수 증가율은 13.6%로 나타났으나 경기도의 종사자수 증가율은 18.6%로 5.0%p 더 높았음

【그림 1-2】 연도별 종사자 수와 증가율 비교 (단위 : 만 명, 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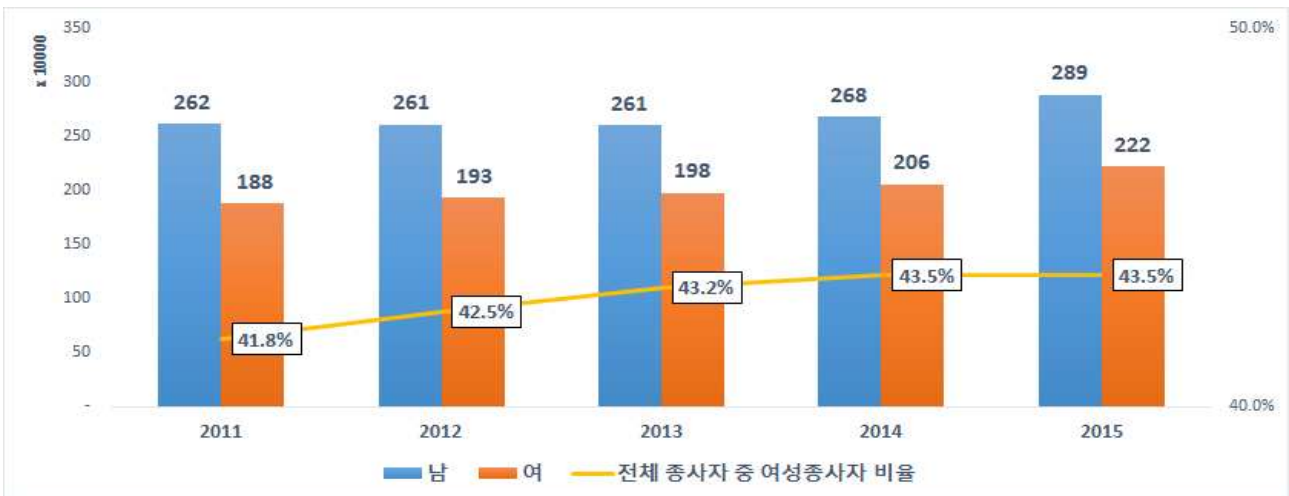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년도], 국가통계포털(KOSIS)

□ 2015년 현재 전체 종사자 중 여성종사자 43.5%

- 2015년 현재 남성 종사자수는 289만 명, 여성 종사자수는 222만 명으로, 2011년에 비해 남성은 268,637명, 여성은 290,550명 증가
- 2011년 전체 종사자 중 여성종사자 비율은 41.8%였으나 2015년 여성종사자 비율은 43.5%로 1.7%p 소폭 증가

【그림 1-3】 연도별성별 종사자 수와 전체종사자 중 여성종사자 비율 (단위 : 만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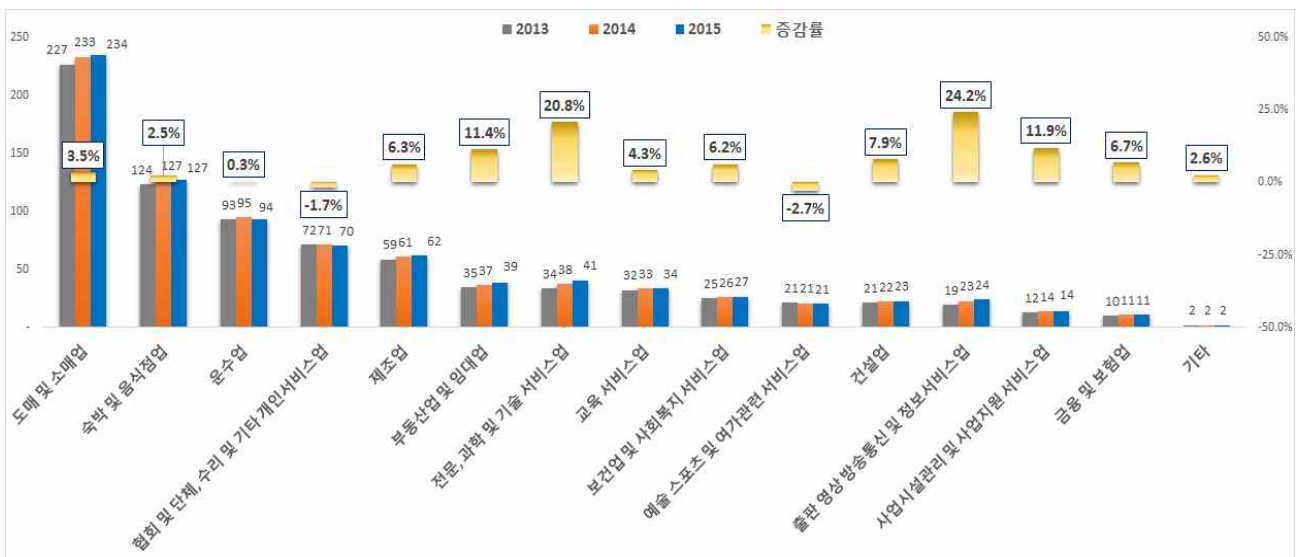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년도], 국가통계포털(KOSIS)

□ 최근 3년 간 사업체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은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2015년 현재 서울지역의 산업별 사업체수를 살펴보면 도매 및 소매업이 234,494개소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숙박 및 음식점업(126,785개소), 운수업(93,642개소)순이었음
- 2013년 대비 2015년 사업체 증감률을 살펴보면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24.2%)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0.8%),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11.9%), 부동산업 및 임대업(11.4%) 순으로 사업체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사업체 중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2.7%)과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1.7%)은 사업체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그림 1-4 ■ 연도별·산업별 사업체 수와 2013년 대비 2015년 사업체 증감률 (단위 : 천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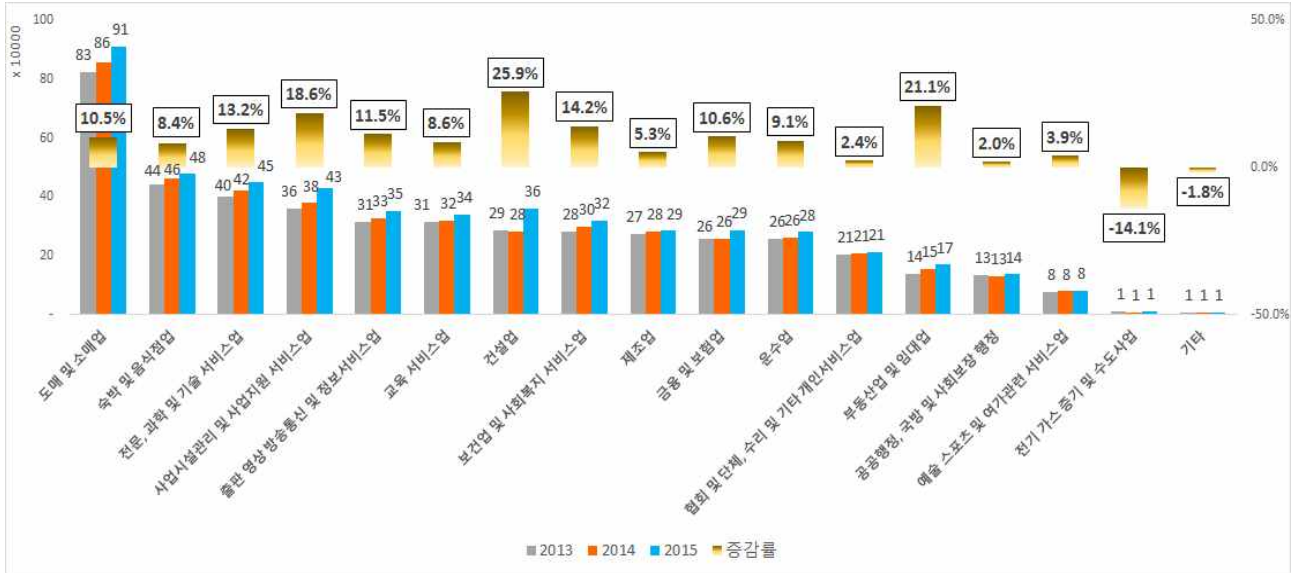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년도], 국가통계포털(KOSIS)

주 : 기타 산업은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광업, 농업·임업 및 어업

□ 최근 3년 간 종사자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은 건설업과 부동산 및 임대업

- 2015년 현재 서울지역 산업별 종사자수는 도매 및 소매업이 912,40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숙박 및 음식점업(480,090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452,004명)순이었음
- 산업별로 2013년 대비 2015년 종사자 증감률을 살펴보면 건설업(25.9%)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부동산 및 임대업(21.1%),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18.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2%)의 종사자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림 1-5 ■ 산업별·성별 종사자수와 2013년 대비 2015년 종사자 증감률 (단위 : 만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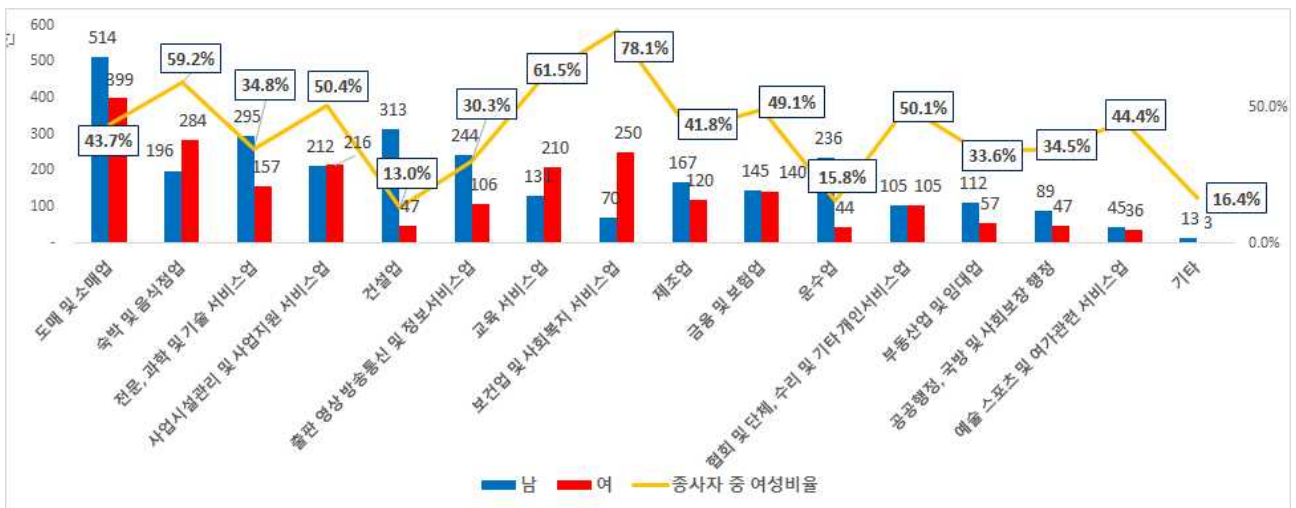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년도], 국가통계포털(KOSIS)

주 : 기타 산업에는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광업, 농업·임업 및 어업이 포함됨

□ 성별 대비 여성고용비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남성고용비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건설업

- 2015년 현재 서울지역에서 남녀 모두 가장 많이 고용된 산업은 도매 및 소매업임
- 산업별로 남성 대비 여성종사자 비율이 높은 3개 업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8.1%), 교육서비스업(61.5%), 숙박 및 음식점서비스업(59.2%) 순이었음
- 산업별로 남성종사자 비율이 높은 3개 업종은 건설업(87.0%), 운수업(84.2%), 기타(83.6%) 인 것으로 나타남

■ 그림 1-6 ■ 산업별·성별 종사자 수와 여성종사자 비율 (단위 : 천 명, %)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5], 국가통계포털(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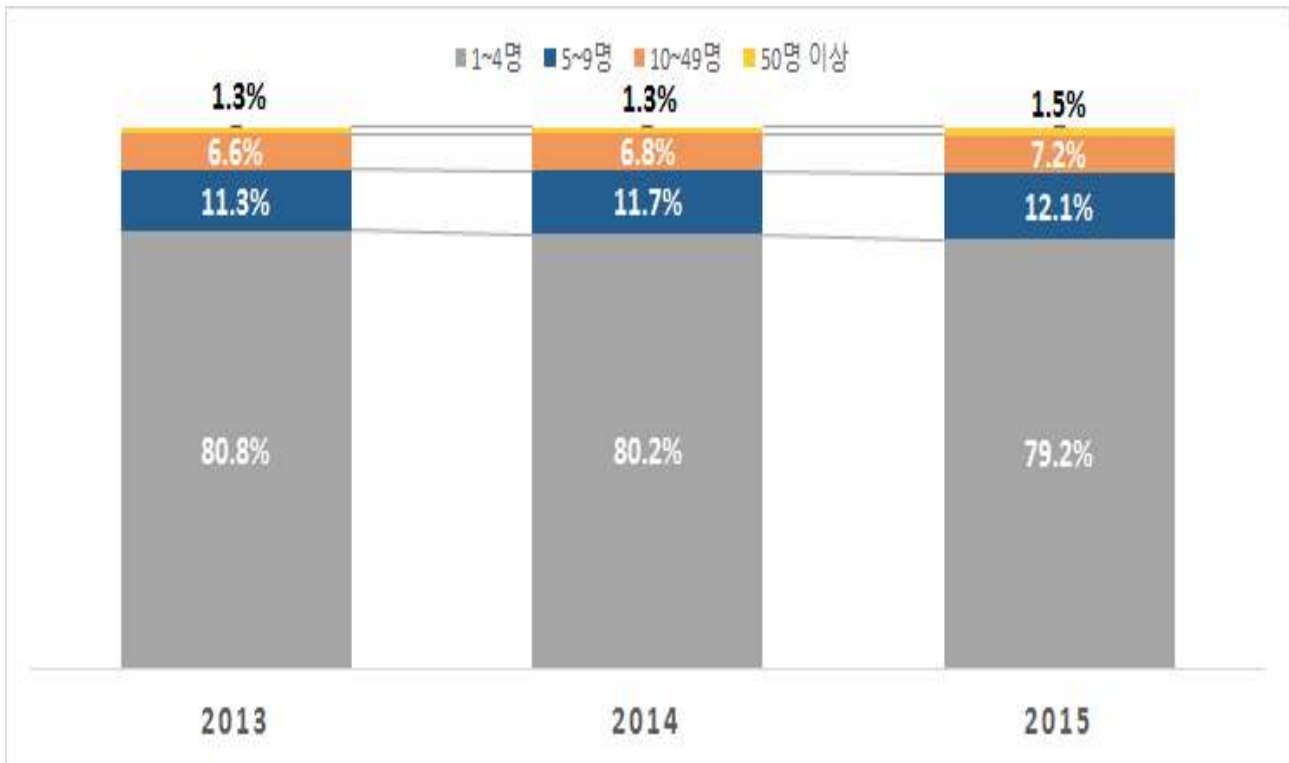
주 : 기타 산업에는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 2. 사업체 규모와 기업체 규모

### □ 서울지역 전체 사업체 중 5인 미만 사업체 비율은 79.2%(2015년 기준)

- 2015년 현재 서울지역 5인 미만 사업체 비율(79.2%)은 압도적으로 높음
- 2013년 대비 2015년 5인 미만 사업체 비율은 1.6%p 소폭 감소함
- 반면에 5~9명 사업체 비율은 0.8%p, 10~49명 사업체 비율은 0.6%p, 50명 이상 사업체 비율은 0.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1-7■ 서울지역 연도별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구성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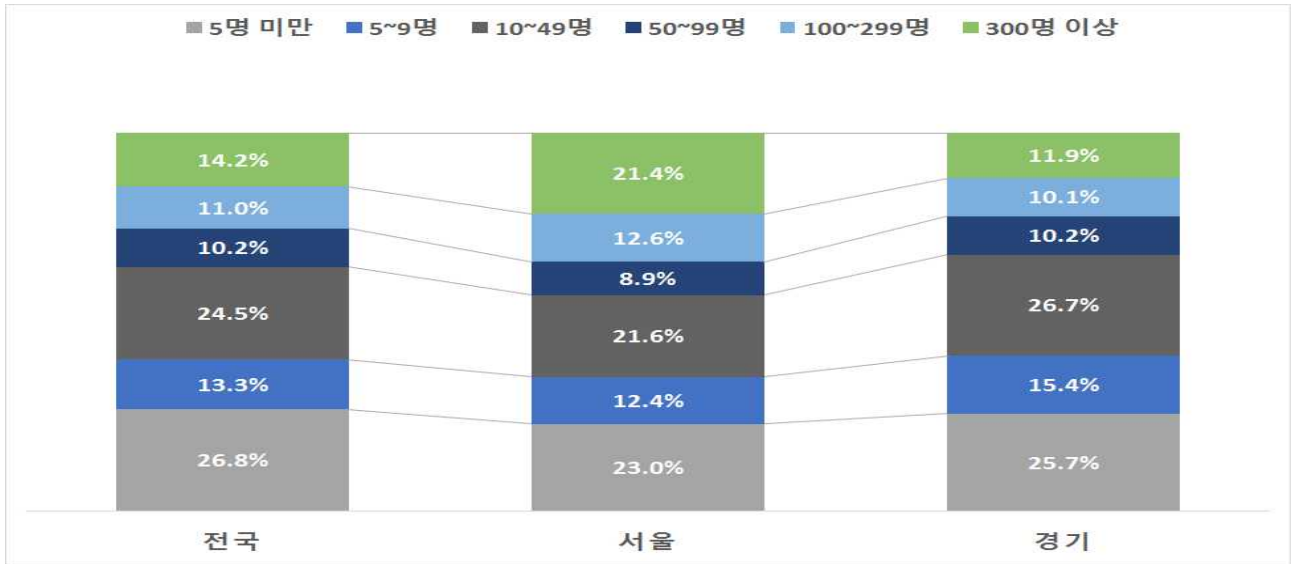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년도], 국가통계포털(KOSIS)

### □ 서울의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비율은 21.4%이나 그 비율이 전국 평균 및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2015년 현재 사업체 종사자 중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비율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14.2%), 서울(21.4%), 경기(11.9%)로 타 지역에 비해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은 23.0%로, 전국 평균(26.8%)과 경기(25.7%)보다 그 비율이 낮음

【그림 1-8】 지역별·종사자 규모별 종사자 구성비 비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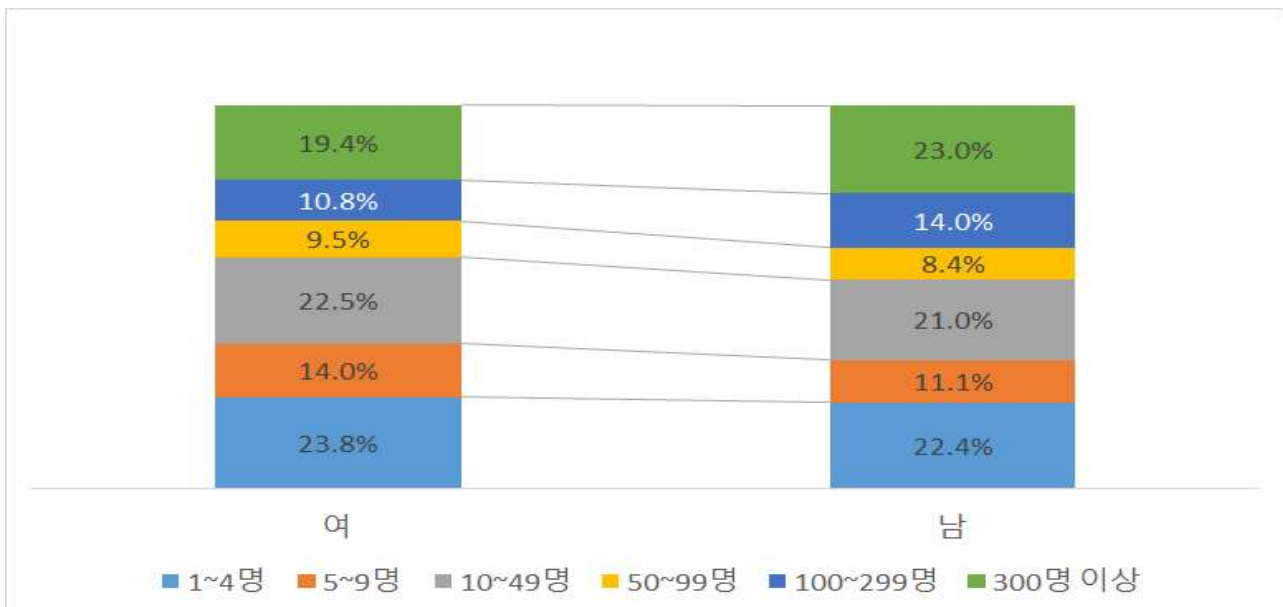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5], 국가통계포털(KOSIS)

□ 남성종사자의 45.4%는 50인 이상 사업체에서 종사, 반면에 여성은 39.7%만 종사

- 여성 종사자 비율은 5인 미만 사업체(23.8%)에서 가장 높았고, 남성 종사자 비율은 300명 이상 사업체(23.0%)에서 가장 높았음
- 기업체 규모별 종사자 구성비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종사자 비율이 높은 사업체는 5인 미만(23.8%), 10~49명(22.5%), 300명 이상(19.4%)순이었음
- 남성 종사자 비율이 높은 사업체는 300명 이상(23.0%), 5인 미만(22.4%), 10~49명 미만(21.0%)순이었음
- 10인 미만 사업장의 여성종사자 비율은 37.8%로, 남성 종사자(33.5%)에 비해 4.3%p 높음

【그림 1-9】 서울지역 종사자 규모별·성별 종사자 구성비 비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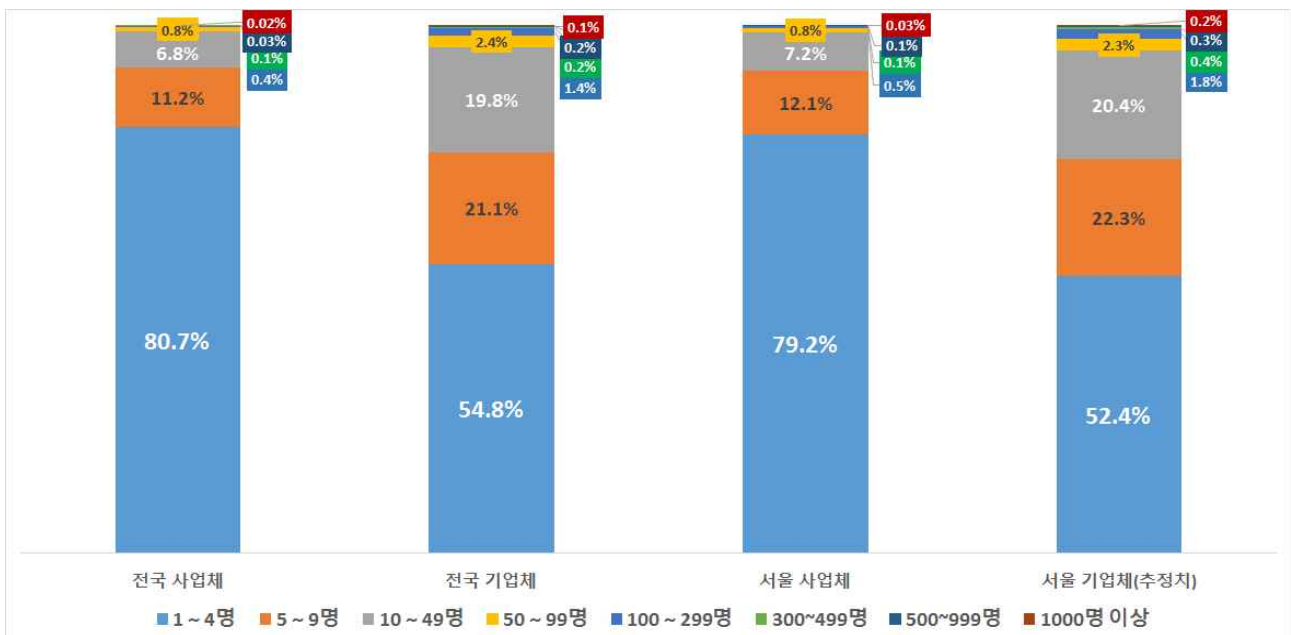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5], 국가통계포털(KOSIS)

일반적으로는 ‘사업체’ 규모를 기준으로 고용통계가 제시되고 있으나, 「전국사업체조사」의 ‘사업체’는 「영리법인기업체행정통계」에서 제공하는 ‘기업체’와 조사 단위가 달라 착시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 「전국사업체조사」는 하나의 기업에 5개 지점이 있을 때, 각각 5개 사업체로 조사한다. 이와 달리 「영리법인기업체행정통계」는 한 기업의 5개 지점을 1개의 기업체로 보기 때문에 기업체 수를 산정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따라서 고용규모별 기업체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국사업체조사」뿐만 아니라 「영리법인기업체통계」에서 제시하는 규모별 기업체 비율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영리법인기업체통계」는 시도별 통계를 제공하지 않아 서울지역의 종사자 규모별 기업체 비율은 추정치로 살펴보았다.

□ 「영리법인기업체통계」를 기준으로 할 때, 5인 미만 기업체 비율은 전국 54.8%, 서울지역 추정치는 52.4%<sup>1)</sup>

- 2015년 [영리법인기업체행정통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국의 5인 미만 기업체 비중은 54.8%로, 전국사업체조사(80.7%)보다 무려 25.9%p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영리법인기업체행정통계]를 바탕으로 2015년 서울지역 기업체 구성비를 추정해 보면, 5인 미만 기업체 비율은 52.4%로, 서울지역 사업체 비율(79.2%) 보다 무려 26.8%p 줄어듦. 즉 기업체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지역 5인 미만 기업체 비중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음
- 서울지역 300인 이상 기업체 비율은 0.9%로, 사업체 비율(0.23%) 보다 0.67%p 소폭 증가하였음

■그림 1-10 ■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와 기업체 구성비 비교 (단위 : %)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5], 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청 [2015년 기준 영리법인기업체 행정통계 잠정결과] 보도자료.(2016.12.16.)

1)

$$[2015년 규모별 서울 기업체수 구성비] = \frac{[2015년 규모별 전국 영리법인 기업체수] \times [2015년 규모별 서울 사업체수]}{[2015년 규모별 전국 사업체수]} \times 100\%$$

### 3. 사업체 종사자와 기업체 일자리

「전국사업체조사」의 ‘종사자’는 조사기준일 현재 임금 또는 이에 준하는 형태의 보수를 받고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피고용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사기준일에 사업체에서 일하지 않은 노동자는 ‘종사자’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사회보험, 신고된 근로소득 등 행정자료로 재구성한 「일자리행정통계」<sup>2)</sup>의 ‘일자리’ 개념은 다르다. 「일자리행정통계」에서 말하는 ‘일자리’란 기업체에서 현물 또는 현금을 대가로 상품생산이나 서비스 활동을 하는 임금근로자 또는 비임금근로자가 점유한 고용위치(filled employment)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사람이 주중에 회사를, 주말에는 학원강사를 하는 경우 ‘종사자’는 1명으로 계산하지만 ‘일자리’는 2개로 계산한다.<sup>3)</sup> 또한 ‘일자리’는 일용노동자 일자리가 포함되어 ‘종사자’에 포함되지 않은 ‘숨겨진 노동자’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종사자규모별로 기업이 어느 정도 고용을 하는지 다각도로 파악하기 위해 「전국사업체조사」의 고용규모별 종사자 구성비와 「일자리행정통계」종사자 규모별 일자리 구성비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2015년 현재 「일자리행정통계」는 시도별 일자리 통계를 제공하지 않아 추정치를 산출하여 서울지역 고용규모별 일자리 구성비를 살펴보았다. 비록 추정치이지만 서울지역에서 고용규모에 따라 어떤 기업이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는지 파악할 수 있어 서울시 노동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다.

#### □ 서울지역은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44.3%)를 제공

- 「전국사업체조사」와 「2015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보도자료<sup>4)</sup>를 활용하여 전국 사업체 종사자 수, 전국 일자리 수, 서울지역 사업체 종사자 수를 통해 서울지역 일자리 수 추정치를 산출함
- 서울지역 일자리 수 추정치를 바탕으로 서울지역 고용규모별 종사자수 구성비와 고용규모별 일자리 구성비(추정치)를 계산하여 비교하였음
-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른 전국 고용규모별 종사자 구성비를 살펴본 결과, 전체 종사자 중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26.8%)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10~49명 사업체(22.9%), 300명 이상 사업체(14.2%) 순이었음
- 이와 달리 전국 기업체 일자리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국의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체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32.7%)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5인 미만 기업체(23.1%), 10~49명 기업체(18.6%) 순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
- 서울지역 사업체 종사자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 종사자의 23.0%가 5인 미만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으며 10~49명 사업체는 21.6%, 300명 이상 사업체는 21.4%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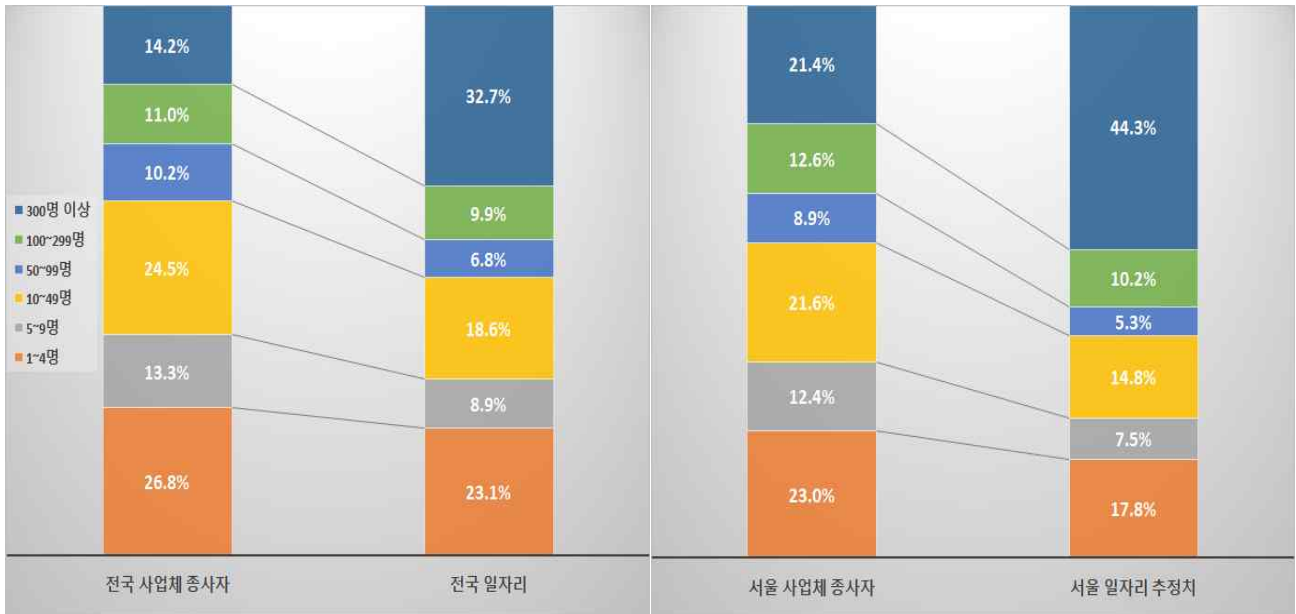
2) 2015년 이전에는 「임금근로일자리행정통계」로 지칭함

3) 다만 「일자리행정통계」는 무급가족종사자와 농림어업의 생산활동 경영인이 점유한 일자리는 제외.

4) 통계청에서는 2014년 「2012년 임금근로일자리행정통계보고서」발행 이후 「일자리행정통계」를 보도자료만 발간.

- 이와 달리 서울지역의 기업체 일자리 추정치를 살펴보면 300명 이상 기업체에서 전체 일자리의 44.3%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5인 미만 기업체(17.8%), 10~49명 기업체(14.8%) 순으로 일자리를 제공함

■그림 1-11 ■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종사자 구성비와 기업체 일자리 구성비 비교 (단위 : %)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5], 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청 [2015년 일자리 행정통계] 보도자료(2016.12.7)

- [영리법인기업체행정통계], [일자리행정통계]를 활용하여 서울지역 기업체 고용규모별 일자리 구성비 추정치 산출 결과 서울은 300명 이상 대규모 기업체 중심으로 일자리가 집중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음
- 따라서 노동정책 방향을 논할 때, 사업체 기준에 따른 기업의 사업체 비중과 고용 비중을 제시했던 것과 함께 기업체를 기준으로 파악한 기업체 비중과 일자리 비중도 같이 고려되어야 함

사업체 규모와 달리 기업체 규모로 파악할 때 300명 이상 대규모 기업의 일자리 비중이 증가하고, 중소기업의 일자리 비중이 감소한다는 결과에 비추어볼 때, 중소기업 사업체 종사자와 취약노동계층을 동일시했던 기존 관점에 대한 보완적 해석이 필요해 보인다. 물론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해서 취약노동계층의 비중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의 고용책임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며, 하청·도급·용역·파견·특수고용 등 임의로 집계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 즉, 간접고용 노동자의 문제가 예상보다 더 심각한 양상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취약노동계층 현황을 분석할 때는 기존 통계의 한계를 넘어서는 분석과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II. 서울의 고용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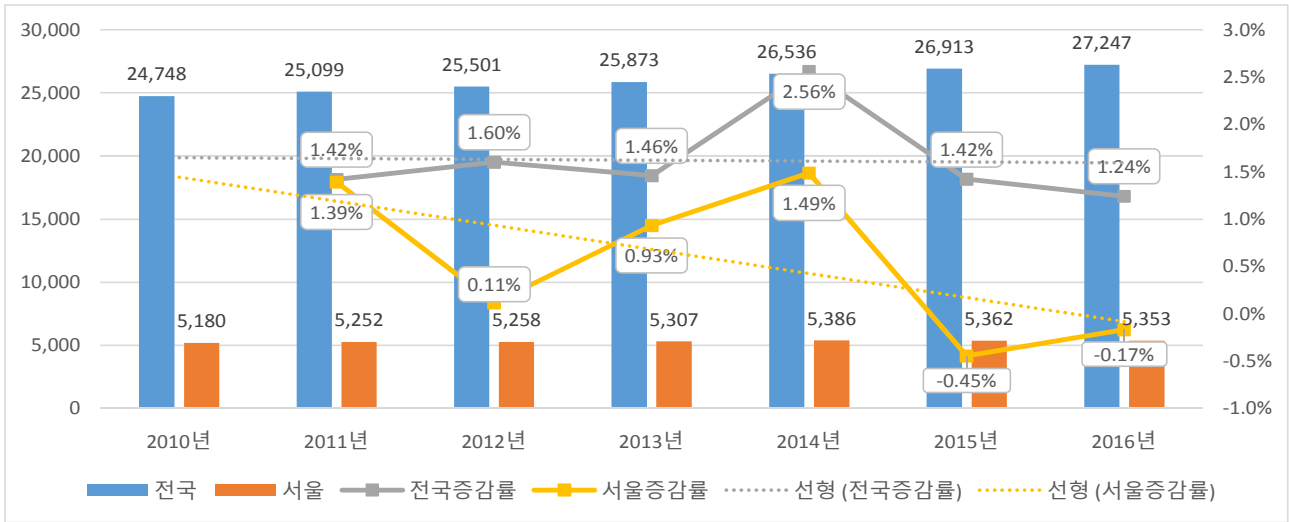
- 서울의 경제활동인구는 2017년 3분기 기준 540만 6천명이며, 비경제활동인구는 308만 5천명임. 연간기준으로 서울의 경제활동인구는 2010년 518만 명에서 2016년 535만 3천명으로 17만 3천명 증가(3.3%)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는 2010년 320만 5천명에서 2016년 317만 3천명으로 3만 2천명 감소(-1.0%)함
-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0년 61.8%에서 2014년 63.2%로 1.4%p 증가하였다가 2015년 62.6%로 다소 감소(-0.6%p)하였으며, 2016년에는 전국 평균과 동일한 62.8%로 나타남
- 2016년 서울의 고용률은 60.1%(2015년 대비 0.1%p 증가, 2010년 대비 1.2%p 증가), 실업률은 4.3%(2015년 대비 0.1%p 증가, 2010년 대비 0.4%p 감소)임. 남성의 고용률은 69.7%로, 여성의 고용률 51.3%보다 높으며, 실업률은 남녀 동일한 4.3%임
- 서울의 청년실업률은 2016년 기준 10.3%로 전국 9.8%보다 높은 수준임. 서울의 명목실업률(4.3%) 대비 명목 청년실업률(10.3%)은 2.4배 높음.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1.8배에서 2.3배로, 2016년이 가장 격차가 컸음
- 추정치로 파악한 서울의 실업자, 시간관련 취업가능자, 잠재경제활동인구 전체 규모는 2015년 연간 평균 67만 3천명에서 2017년 3분기 평균 68만 1천명으로 약 8천명 증가함. 2017년 3분기 평균 서울의 고용보조지표1 추정치는 6.7%, 고용보조지표2 추정치 10.0%, 고용보조지표3 추정치 11.9%로 전국보다 높은 수준임
- 추정치로 파악한 서울의 청년층 실업자, 시간관련 취업가능자, 잠재경제활동인구 전체 규모는 2015년 연간 평균 22만 7천명에서 2017년 3분기 평균 23만 9천명으로 1만 2천명 증가함. 2017년 3분기 평균 서울의 청년 고용보조지표1 추정치는 12.2%, 고용보조지표2 추정치 20.1%, 고용보조지표3 추정치 21.8%였음

### 1. 경제활동인구

- 서울의 경제활동인구는 535만 3천명(2016년 기준)
  - 서울의 경제활동인구는 2010년 518만 명에서 2014년 538만 6천명(2010년 대비 20만 6천명 증가)으로 증가하였다가, 2015년 536만 2천명, 2016년 535만 3천명으로 감소함
  - 2016년 서울의 경제활동인구는 2010년 대비 3.34%(17만 3천명) 증가하였지만, 2015년과 비교하여 0.17%(9천명) 감소함. 서울의 경제활동인구는 2014년까지 증가하다가 2015년부터는 감소하고 있음
  - 전국 경제활동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2010년 2,474만 8천명에서 2014년 2,653만 6천명, 2015년 2,691만 3천명, 2016년 2,724만 7천명으로 증가함

-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경제활동인구 연평균 증감률을 보면, 서울은 0.55%로 전국의 1.62%보다 낮은 수준임

【그림 II-1】 서울시, 전국 경제활동인구 (단위 :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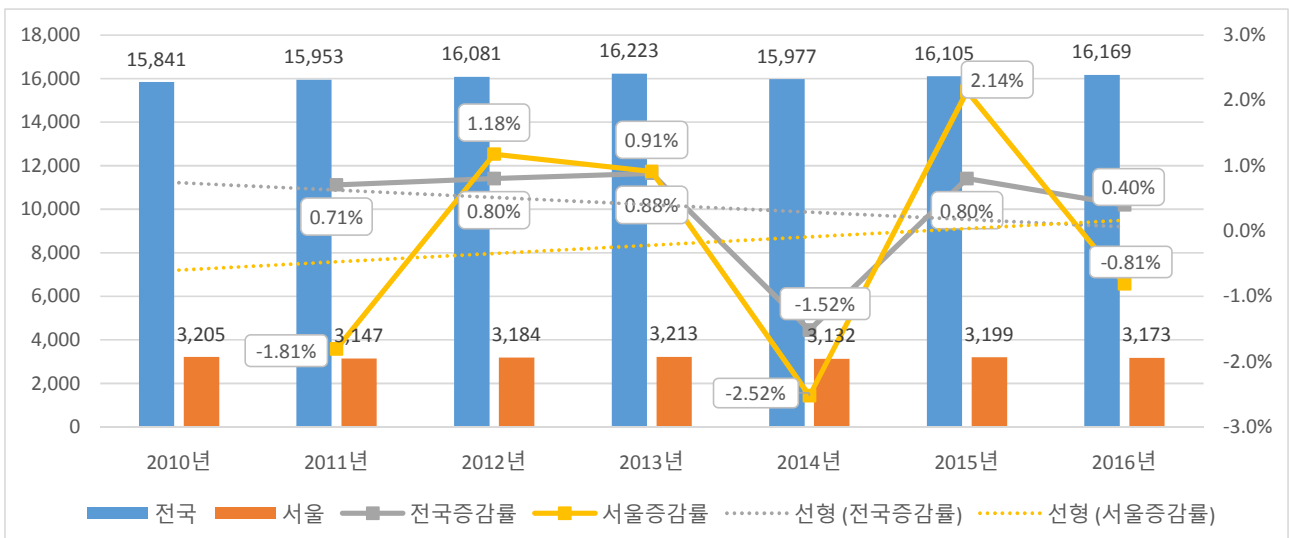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국가통계포털(KOSIS)

□ 서울의 비경제활동인구는 317만 3천명(2016년 기준)

- 서울의 비경제활동인구는 2010년 320만 5천명에서 2015년 319만 9천명, 2016년 317만 3천 명으로 감소함
- 전국의 비경제활동인구는 2010년 1,584만 1천명에서 2015년 1,610만 5천명, 2016년 1,616만 9천명으로 증가함. 2014년만 전년대비 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였을 뿐, 그 밖의 연도에서는 전년과 비교하여 증가함
-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비경제활동인구 연평균 증감률을 보면, 서울은 -0.17%로 전국의 0.34%보다 낮음

【그림 II-2】 서울시, 전국 비경제활동인구 (단위 :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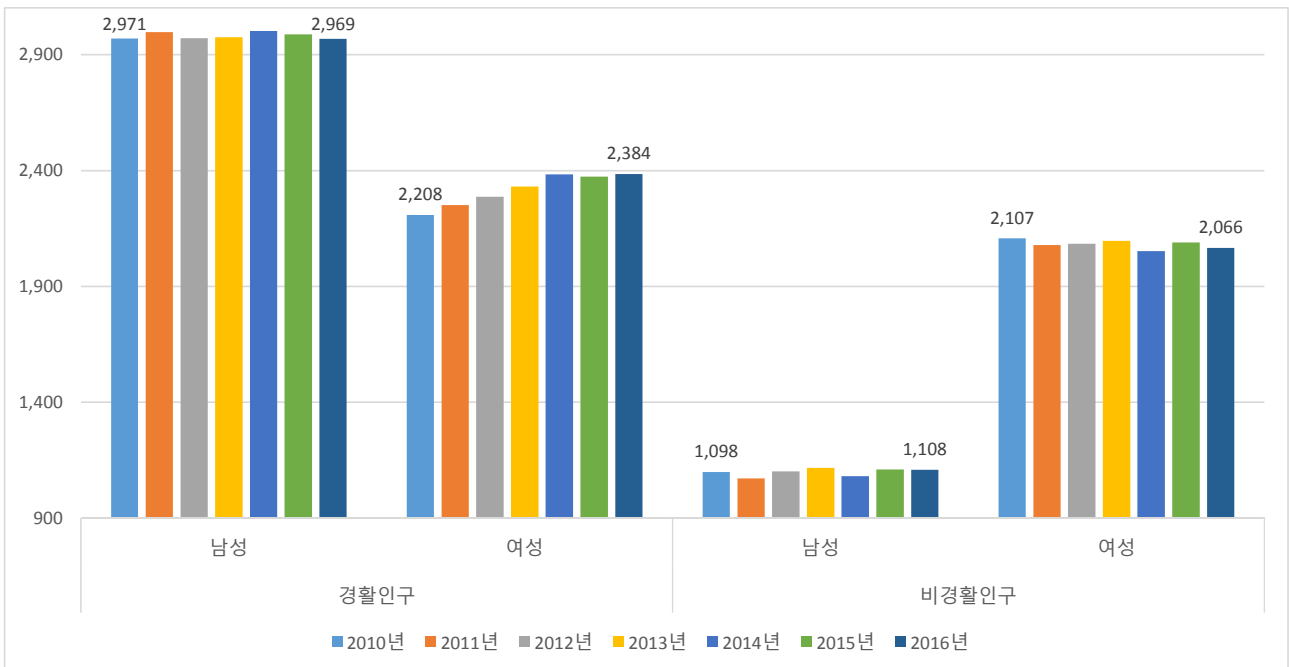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국가통계포털(KOSIS)

□ 서울의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증가,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

- 성별에 따른 서울의 경제활동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제활동인구는 2010년 297만 1천명에서 2016년 296만 9천명으로 소폭(2천명) 감소함. 이에 반해 여성의 경제활동인구는 2010년 220만 8천명에서 2016년 238만 4천명으로 17만 6천명 증가함. 2010년 대비 2016년 남성의 경제활동인구는 0.07% 감소하였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인구는 7.97% 증가함
- 성별에 따른 서울의 비경제활동인구의 변화를 보면, 남성의 비경제활동인구는 2010년 220만 8천명에서 2016년 238만 4천명으로 1만 명 증가함. 이에 반해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는 2010년 210만 7천명에서 2016년 206만 6천명으로 4만 1천명 감소함. 2010년 대비 2016년 남성의 비경제활동인구는 0.91% 증가하였으며,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는 1.95% 감소함
- 남성의 경제활동인구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변화 폭에 비해, 여성의 변화가 크게 나타남. 2010년 대비 2016년의 경제활동인구 증감률이 남성은 0.07% 감소, 여성은 7.97% 증가함. 2010년 대비 2016년의 비경제활동인구 증감률은 남성 0.91% 증가, 여성 1.9% 감소함.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증감률도 마찬가지로임. 경제활동인구의 연평균증감률은 남성 -0.01%, 여성 1.29%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 연평균증감률은 남성 0.15%, 여성 -0.33%였음

【그림 II-3】 서울시 성별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단위 : 천 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국가통계포털(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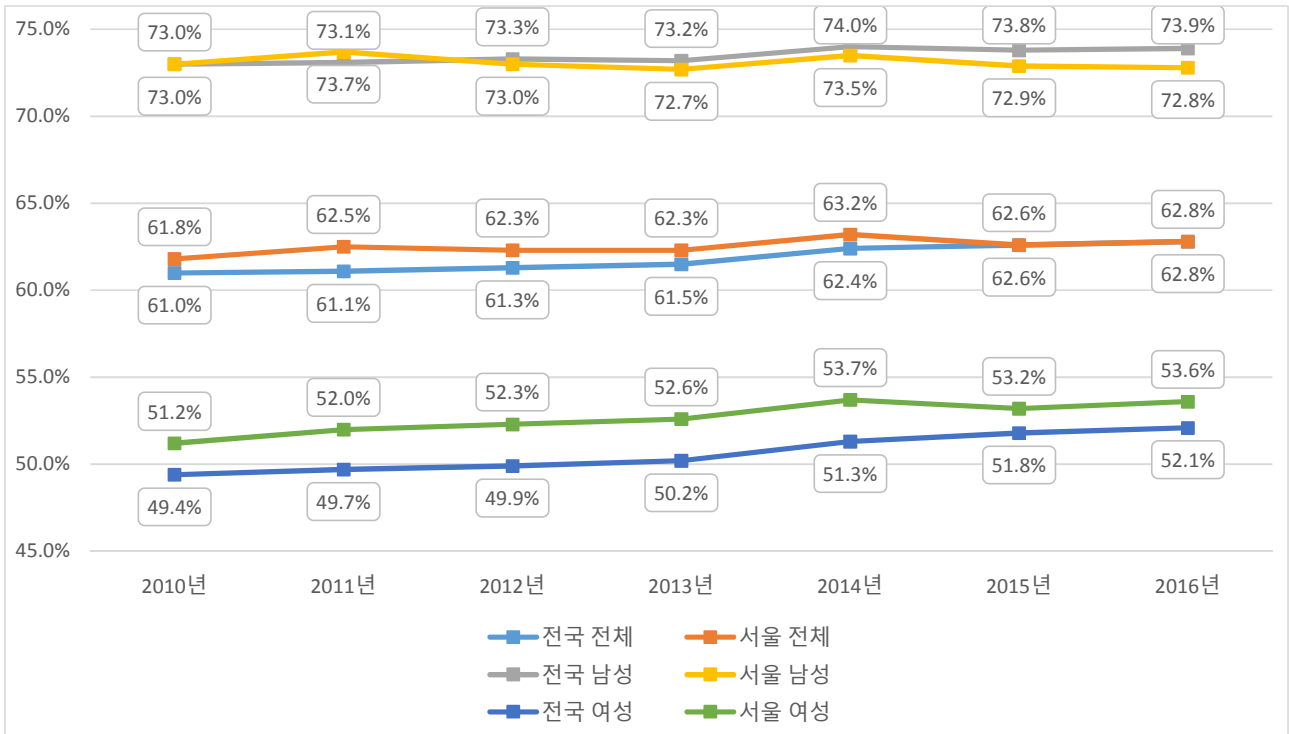
□ 서울의 전체 경제활동참가율 62.8%, 남성 72.8%, 여성 53.6%(2016년 기준)

-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6년 기준 62.8%로, 전국과 동일함. 서울의 2016년 경제활동참가율은 2010년 대비 1.0%p, 2015년 대비 0.02%p 증가함
- 성별에 따른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6년 기준 남성은 72.8%, 여성은 53.6%임. 전국과 유사하게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음. 하지만,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 서울의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10년 대비 0.02%p 감소한 반면, 여성은 2010년 대비 2.4%p 증가함. 전국 기준으로는 2016년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10년 대비 0.9%p, 여성은 2.7%p 각각 증가함

-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이 서울보다 높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서울이 전국보다 높음

【그림 II-4】 서울시, 전국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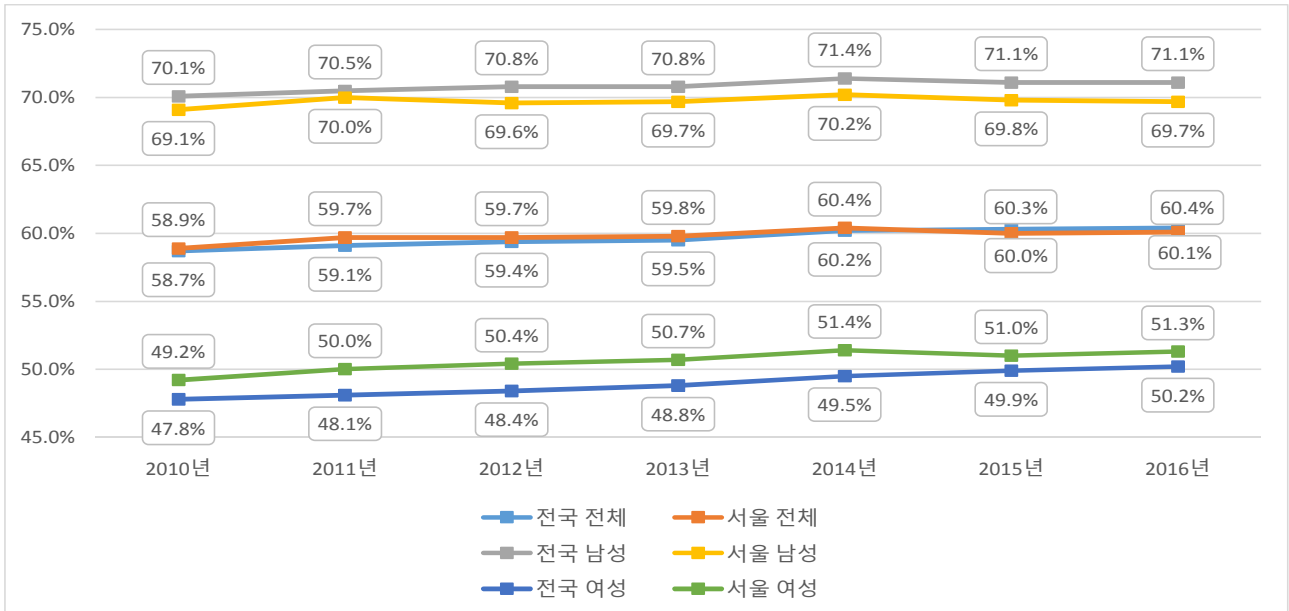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국가통계포털(KOSIS)

## 2. 고용률과 실업률

### □ 서울의 고용률은 60.1%(2016년 기준)

- 2016년 서울의 고용률은 60.1%로 2015년(60.0%) 대비 0.1%p 증가, 2010년(58.9%) 대비 1.2%p 증가함. 2016년 서울의 고용율은 전국의 고용률 60.4%보다 낮음
-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의 고용률이 전국보다 높았으나, 2015년부터 전국의 고용률이 서울의 고용률을 추월함
- 성별에 따른 고용률을 살펴보면 2016년 서울의 남성 고용률은 69.7%로 2010년 대비 0.06%p 증가함. 여성의 고용률은 2016년 기준 51.3%로 2010년 대비 2.1%p 증가함. 남성의 고용률 증가보다 여성의 고용률 증가폭이 컸음
- 또한 서울의 남성 고용률은 2010년부터 2016년 기간 동안 전국보다 낮았으나, 서울의 여성 고용률은 전국보다 높았음

【그림 II-5】 서울시, 전국 고용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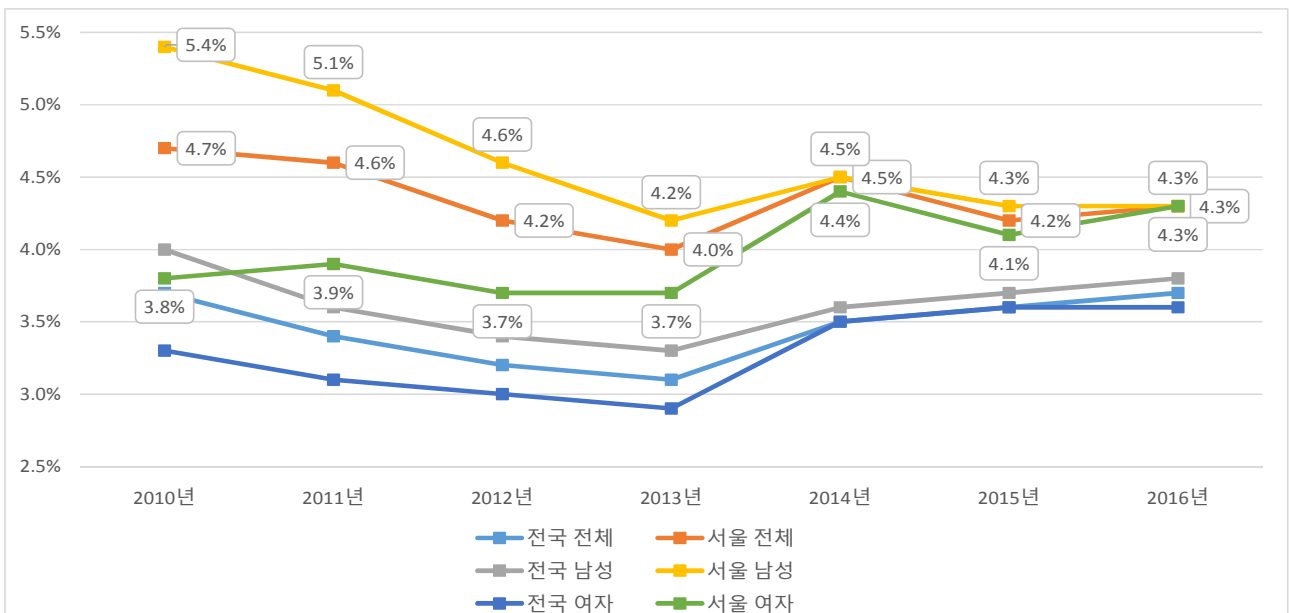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 각 년도], 국가통계포털(KOSIS)

□ 서울의 실업률은 4.3%(2016년 기준)

- 2016년 서울의 실업률은 4.3%이며, 이는 2010년 대비 0.4%p 감소한 수치임. 서울의 실업률(4.3%)이 전국의 실업률(3.7%)보다 높음
- 성별로 살펴보면 2016년 서울의 남성과 여성 실업률 모두 4.3%임. 다만, 서울의 남성 실업률은 감소 추세이나, 여성의 실업률은 증가 추세를 보임. 서울의 남성 실업률은 2010년 5.4%에서 2016년 4.3%로 1.1%p 감소함. 이에 반해 서울의 여성 실업률은 2010년 3.8%에서 2016년 4.3%로 0.5%p 증가함

【그림 II-6】 서울시, 전국 실업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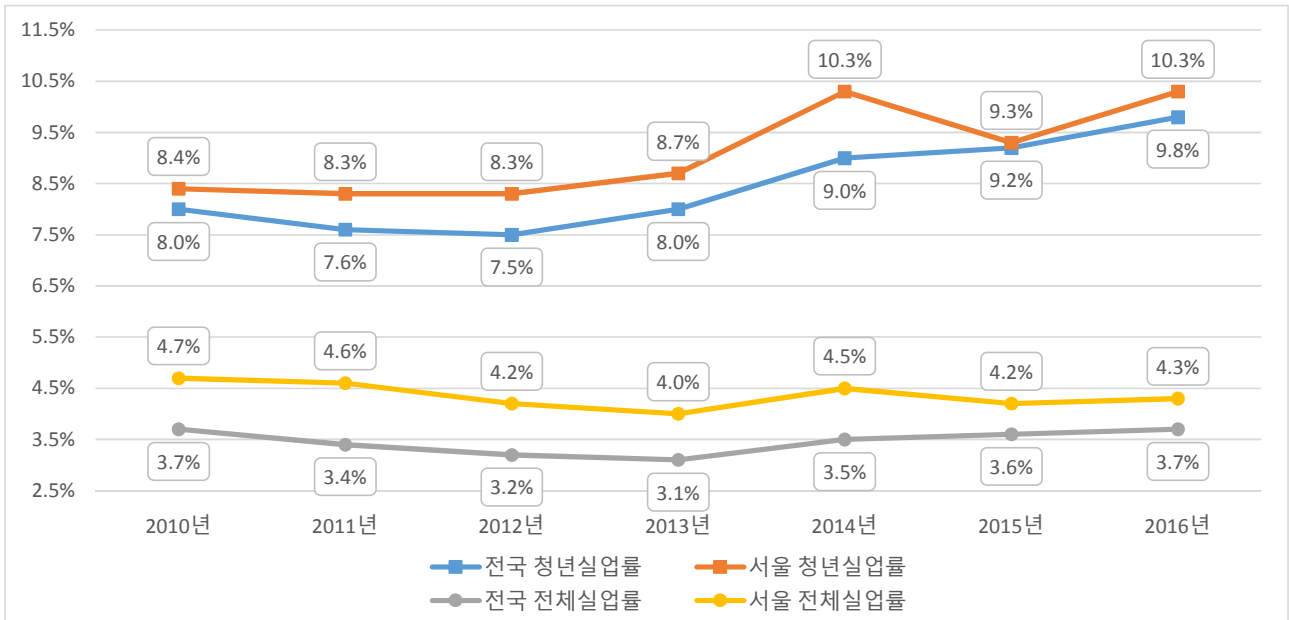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국가통계포털(KOSIS)

주 : 서울지역 실업률 데이터만 표기

□ 2016년 서울의 청년실업률은 10.3%로 전국(9.8%)보다 높음

- 서울의 청년실업률은 2010년 8.4%에서 2014년 10.3%까지 증가함. 2015년 9.3%로 감소하다가 2016년 다시 10.3%까지 증가함. 전국의 청년실업률은 2010년 8.0%에서 2012년 7.5%로 감소한 이후, 2013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2016년 9.8%까지 증가함
- 전체 실업률과 비교하여, 2016년 기준 서울의 청년실업률(10.3%)은 전체실업률(4.3%) 대비 2.4배 높은 수준임. 2010년과 비교하여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2010년 기준 서울의 청년실업률은 8.4%였으며, 전체실업률은 4.7%로 그 격차가 1.8배 수준이었음
- 전국은 2010년 청년실업률과 전체실업률간 차이가 2.2배 수준에서 2016년 2.6배로 확대됨

【그림 II-7】 서울시, 전국 청년실업률과 전체실업률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국가통계포털(KOSIS)

□ 2017년 3/4분기 서울의 각 고용보조지표 추정치는 고용보조지표1 6.6%, 고용보조지표2 9.9%, 고용보조지표3 11.8%<sup>5)</sup>

- 전국 취업자 중 시간관련 취업가능자 비율과 비경제활동인구 중 잠재경제활동인구 비율 등을

5) 고용보조지표에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시간관련 취업가능자 : 실제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인면서, 추가취업을 희망하고 추가취업이 가능한 자

잠재경제활동인구 : 잠재취업가능자 + 잠재구직자

잠재취업가능자 :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자

잠재구직자 :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자

서울의 고용보조지표 추정방식은 다음과 같음

서울의 시간관련 취업가능자 추정치 = 서울의 취업자 × 전국 취업자 중 시간관련 취업가능자 비율

서울의 잠재경제활동인구 추정치 = 서울의 비경제활동인구 × 전국 비경제활동인구 중 잠재경제활동인구 비율

서울의 고용보조지표1 = [(서울 실업자 + 서울 시간관련 취업가능자 추정치) / 서울 경제활동인구]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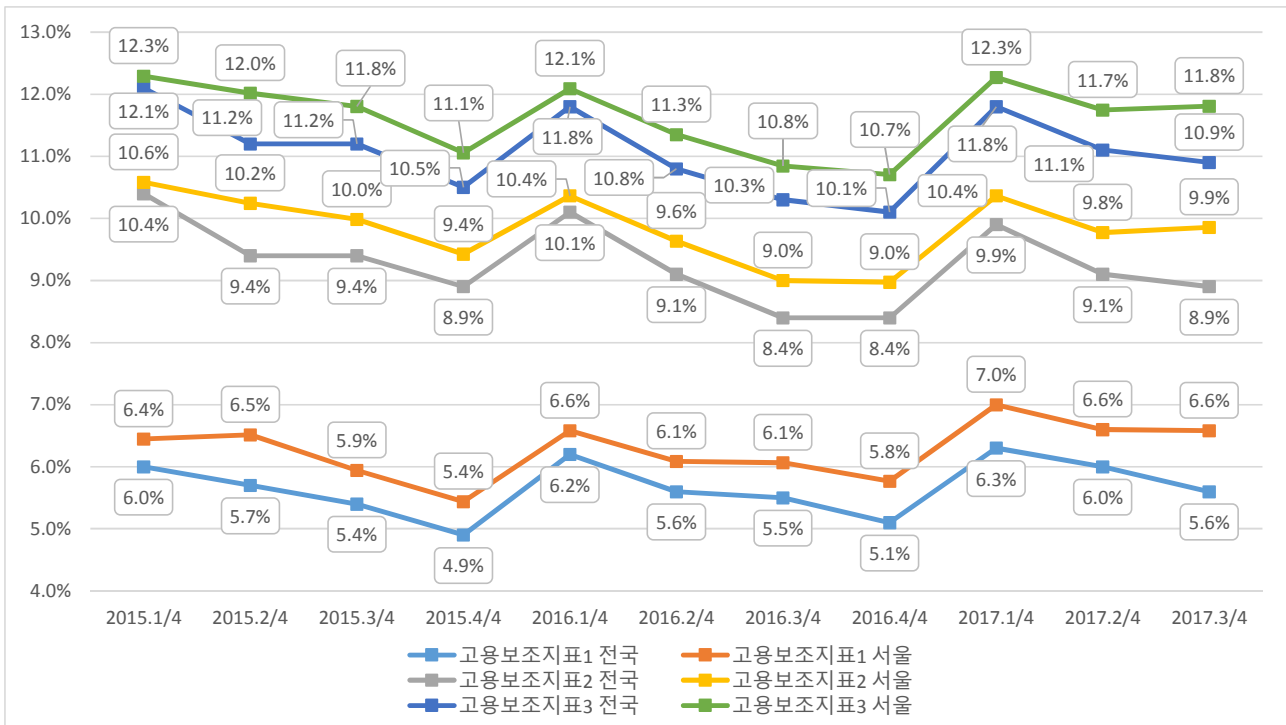
서울의 고용보조지표2 = [(서울 실업자 + 서울 잠재경제활동인구 추정치) / (서울 경제활동인구 + 서울 잠재경제활동인구 추정치)] × 100

서울의 고용보조지표3 = [(서울 실업자 + 서울 시간관련 취업가능자 추정치 + 서울 잠재경제활동인구 추정치) / (서울 경제활동인구 + 서울 잠재경제활동인구 추정치)] × 100

적용하여 서울의 시간관련 취업가능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를 추정함

- 추정치로 파악한 서울의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2017년 3/4분기 기준 11만 2천명이며, 잠재경제활동인구는 32만 명임. 명목실업자 24만 4천명을 포함할 경우, 총 규모는 67만 6천 명임
- 2017년 3/4분기 기준 서울의 고용보조지표1 추정치는 6.6%이며, 고용보조지표2 추정치는 9.9%, 고용보조지표3 추정치는 11.8%임. 전국의 고용보조지표1 5.6%, 고용보조지표2 8.9%, 고용보조지표3 10.9%와 비교하여 서울의 고용보조지표가 높음
- 연간 평균을 비교할 경우, 서울의 고용보조지표1 추정치는 2015년 6.1%에서 2017년 3/4분기 평균 6.7%로 0.7%p 증가하였으며, 고용보조지표2 추정치는 2015년 10.1%에서 2017년 3/4분기 평균 10.0%로 0.1%p 감소하였으며, 고용보조지표3 추정치는 2015년 11.8%에서 2017년 3/4분기 평균 11.9%로 0.1%p 증가함
- 전년 동기와 비교할 경우, 2017년 3/4분기 서울의 고용보조지표1 추정치(6.6%)는 2016년 3/4분기 고용보조지표1 추정치(6.1%)보다 0.5%p 증가함. 2017년 3/4분기 서울의 고용보조지표2 추정치(9.9%)는 전년 동기(9.0%) 대비 0.9%p 증가함. 2017년 3/4분기 서울의 고용보조지표3 추정치(11.8%)는 전년 동기(10.8%) 대비 1.0%p 증가함. 전년 동기대비 모든 고용보조지표 추정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Ⅱ-8■ 서울시, 전국 고용보조지표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국가통계포털(KOSIS)

□ 2017년 3/4분기 서울의 청년 고용보조지표 추정치는 고용보조지표1 11.6%, 고용보조지표2 19.7%, 고용보조지표3 21.2%<sup>6)</sup>

- 추정치로 파악한 서울의 청년층(15세~29세)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2017년 3/4분기 1만 7천명이며, 잠재경제활동인구는 12만 명임. 청년 명목실업자 9만 6천명을 포함할 경우, 총 규모는 23만 3천명임
- 서울의 청년 고용보조지표1 추정치는 2017년 3/4분기 기준 11.6%이며, 고용보조지표2 추정치는 19.7%, 고용보조지표3 추정치는 21.2%임. 전국의 청년 고용보조지표1 11.0%, 고용보조지표2 20.7%, 고용보조지표3 22.2%와 비교하여 서울의 청년 고용보조지표는 낮게 나타남. 전체 대상에서는 서울이 전국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서울이 전국보다 낮았음
- 연간 평균을 비교할 경우, 서울의 청년 고용보조지표1 추정치는 2015년 10.9%에서 2017년 3/4분기 평균 12.2%로 1.3%p 증가하였으며, 고용보조지표2 추정치는 2015년 19.4%에서 2017년 3/4분기 평균 20.1%로 0.7%p 증가하였으며, 고용보조지표3 추정치는 2015년 20.8%에서 2017년 3/4분기 평균 21.8%로 0.8%p 증가함
- 전년 동기와 비교할 경우, 2017년 3/4분기 서울의 청년 고용보조지표1 추정치(11.6%)는 2016년 3/4분기 청년 고용보조지표1 추정치(11.5%)보다 0.1%p 증가함. 2017년 3/4분기 서울의 청년 고용보조지표2 추정치(19.7%)는 전년 동기(18.6%) 대비 1.1%p 증가함. 2017년 3/4분기 서울의 청년 고용보조지표3 추정치(21.2%)는 전년 동기(20.4%) 대비 0.8%p 증가함. 전년 동기대비 모든 청년 고용보조지표 추정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6) 서울의 청년 고용보조지표 추정방식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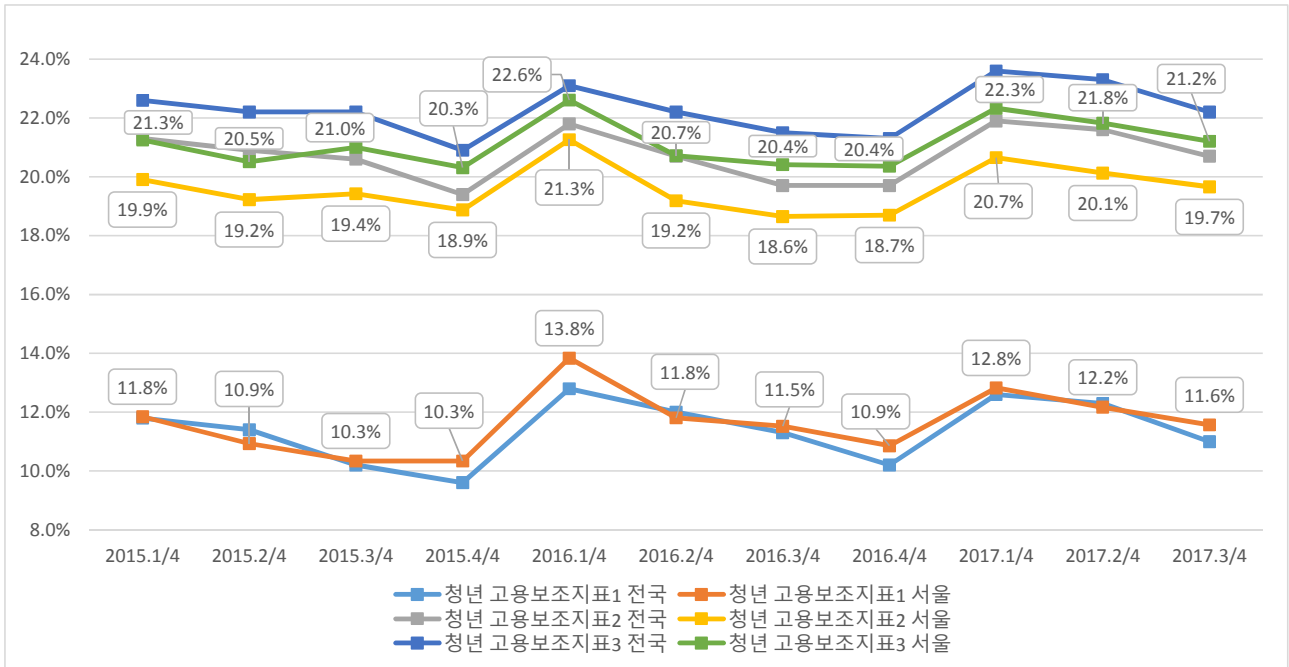
서울의 청년 시간관련 취업가능자 추정치 = 서울의 청년 취업자 × 전국 청년 취업자 중 청년 시간관련 취업가능자 비율  
 서울의 청년 잠재경제활동인구 추정치 = 서울의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 전국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중 청년 잠재경제활동인구 비율

서울의 청년 고용보조지표1 = [(서울 청년 실업자 + 서울 청년 시간관련 취업가능자 추정치) / 서울 청년 경제활동인구] × 100

서울의 청년 고용보조지표2 = [(서울 청년 실업자 + 서울 청년 잠재경제활동인구 추정치) / (서울 청년 경제활동인구 + 서울 청년 잠재경제활동인구 추정치)] × 100

서울의 청년 고용보조지표3 = [(서울 청년 실업자 + 서울 청년 시간관련 취업가능자 추정치 + 서울 청년 잠재경제활동인구 추정치) / (서울 청년 경제활동인구 + 서울 청년 잠재경제활동인구 추정치)] × 100

【그림 II-9】 서울시, 전국 청년 고용보조지표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국가통계포털(KOSIS)

주 : 서울지역 청년 고용보조지표 추정치만 표기

### Ⅲ. 취약계층노동자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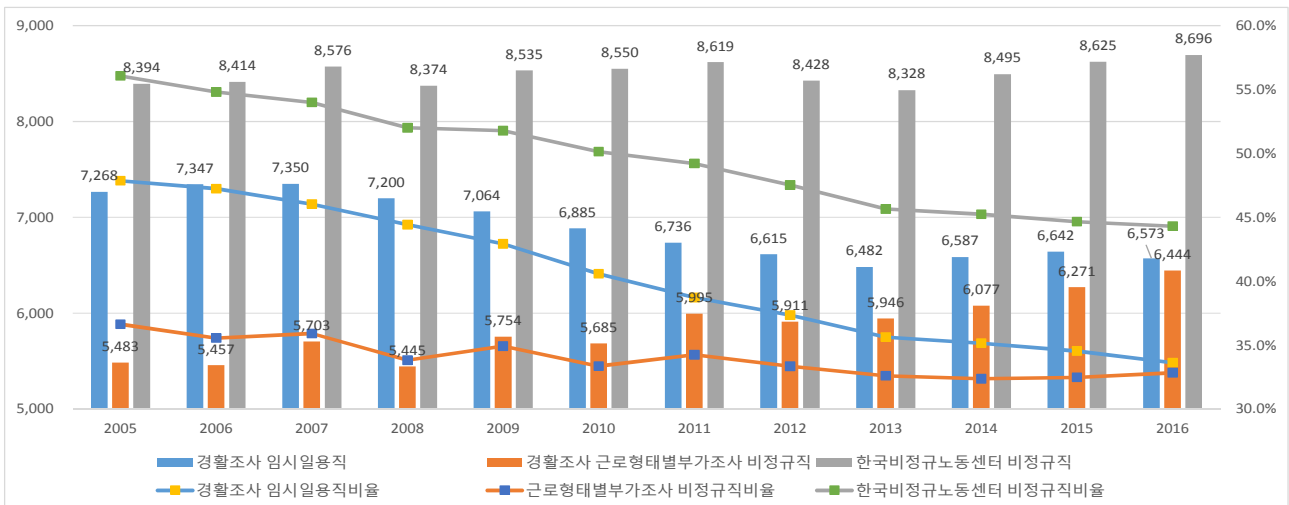
#### 1. 비정규직 노동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을 근로형태별부가조사를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통계로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형태별부가조사에서 상용직인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추정되고 있어 실제 비정규직의 규모를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임시일용직과 근로형태별부가조사에 의한 비정규직, 그리고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비정규직 현황을 함께 제시한다. 서울시의 비정규직 규모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규모를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추정 비정규직 규모 869만 6천명(2016)으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근로형태별부가조사에 비해 높음
  -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비정규직 규모는 2005년 839만 4천명에서 2016년 869만 6천명으로 30만 2천명이 증가함. 비정규직 비율은 2005년 56.1%에서 2016년 44.3%로 11.8%p 감소함. 비정규직 규모는 증가하나 비율은 감소함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상 임시일용직 규모는 2005년 726만 8천명에서 2016년 657만 3천명으로 69만 5천명 감소함. 비정규직(임시일용직) 비율은 2005년 47.9%에서 2016년 33.6%로 14.3%p 감소함. 비정규직 규모와 비율 모두 감소함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의 비정규직 규모는 2005년 548만 3천명에서 2016년 644만 4천명으로 96만 1천명 증가함. 비정규직 비율은 2005년 36.6%에서 2016년 32.8%로 3.8%p 감소함. 비정규직 규모는 증가하나 비율은 감소함

【그림 Ⅲ-1】 전국 비정규직 규모와 비율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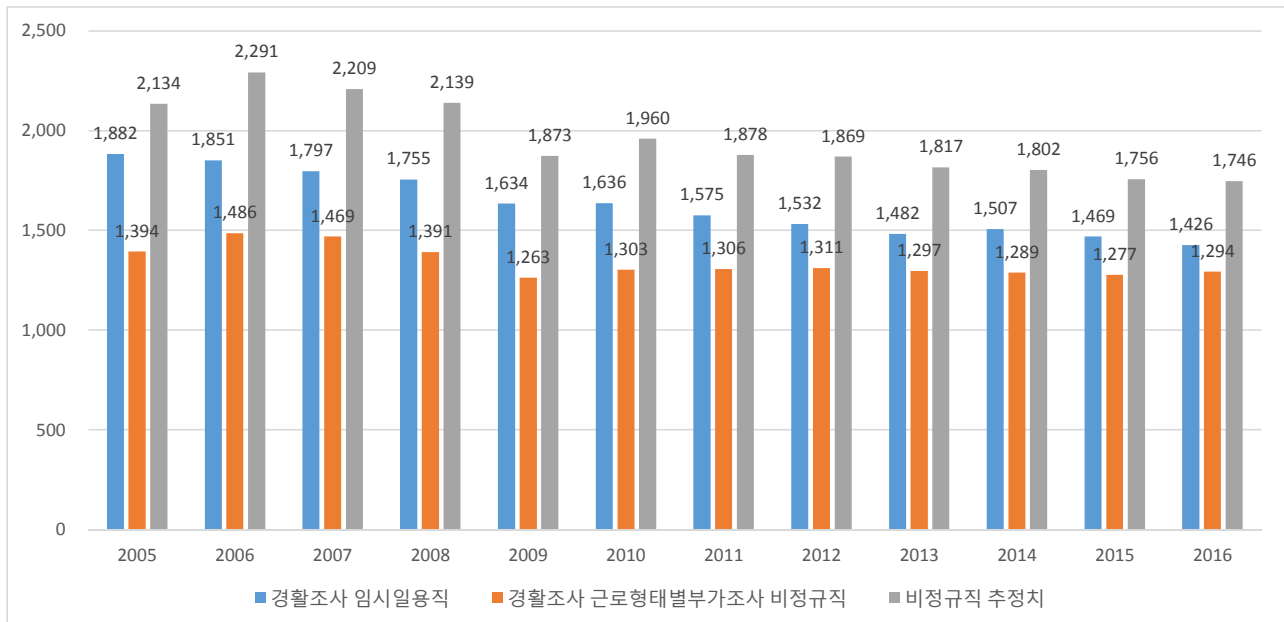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조, 각 년도], 국가통계포털(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6. 8.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분석

### □ 서울의 비정규직 규모 174만6천명 추정

- 서울의 비정규직 추정방식은 근로형태별부가조사에서 서울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을 한국 비정규노동센터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규모에 적용하여 서울의 비정규직 규모를 추정함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기준으로 서울의 비정규직 산출 결과 2005년 213만 4천명에서 2016년 174만6천명으로 38만 8천명이 감소하였으며, 2016년 서울의 비정규직 비율은 44.3%임
- 2016년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근로형태별부가조사에서는 각각 142만6천명(35.3%), 129만4천명(32.1%)으로 추정치보다 낮게 나타남

【그림 III-2】 서울 비정규직 규모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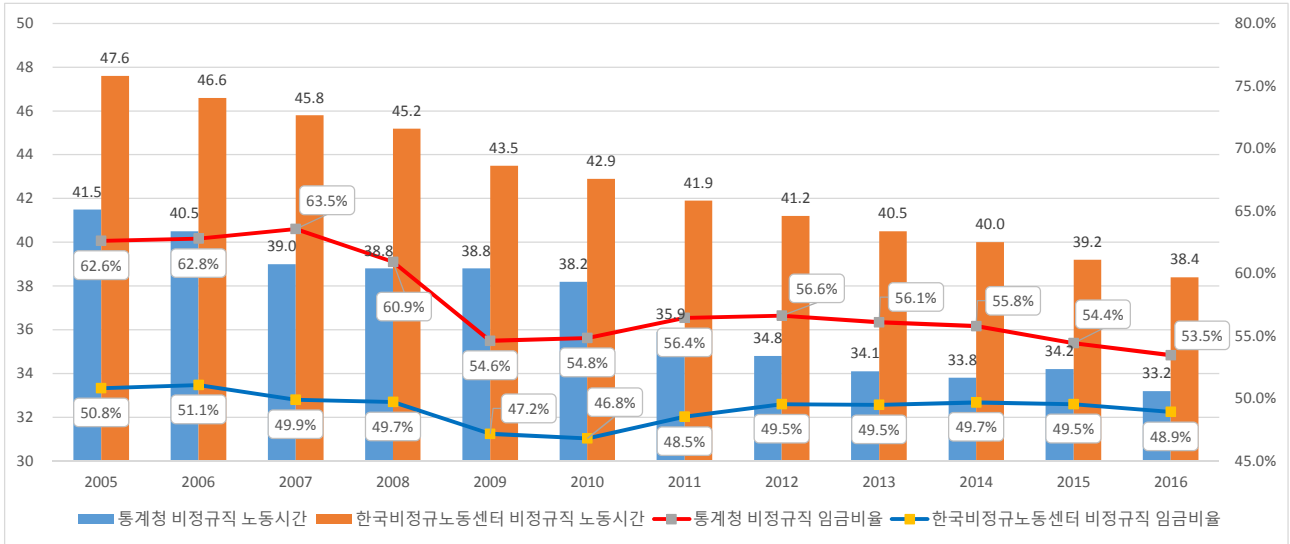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조, 각 년도], 국가통계포털(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6. 8.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분석

### □ 비정규직 노동시간과 임금

-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분석한 기준에 의하면 비정규직 노동시간은 통계청보다 5.2시간 많은 38.4시간이며, 정규직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은 통계청의 53.5%보다 낮은 48.9%였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기준에 의할 경우, 통계청보다 비정규직의 노동시간이 길고, 임금비율은 낮았음
- 비정규직의 노동시간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통계청 기준 모두에서 감소하는 추세임.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기준으로는 2005년 47.6시간에서 2016년 38.4시간으로 9.2시간 감소하였으며, 통계청 기준으로 2005년 41.5시간에서 2016년 33.2시간으로 8.3시간 감소함. 연평균감소율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기준 2.01%, 통계청 기준 1.93%임
- 정규직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도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통계청 기준 모두 하락함. 즉 두 기준 모두에서 2005년보다 2016년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더 커졌다는 것을 의미함. 2005년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통계청의 정규직대비 비정규직 임금 수준은 각각 50.8%와 62.6%였으나, 2016년에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48.9%, 통계청 53.5%였음. 2005년 대비 각각 1.9%p, 9.1%p 하락한 수준으로 통계청 기준에 의할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

【그림 III-3】 통계청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비정규직 노동시간과 임금 비교 (단위 : 시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국가통계포털(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6. 8.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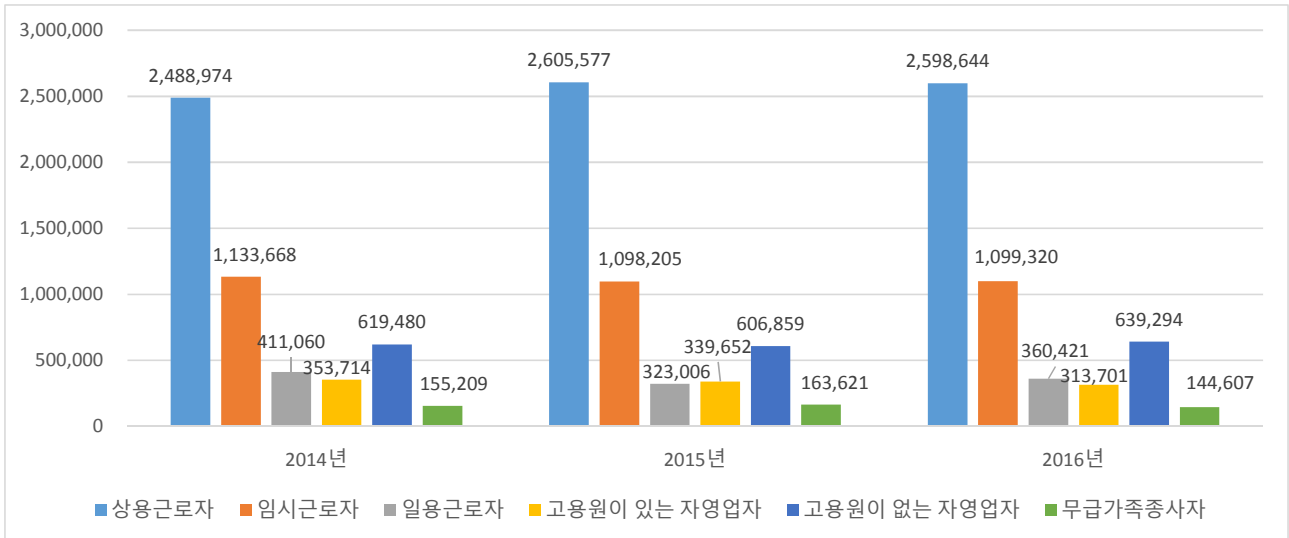
## 2. 취약계층(임시일용직) 노동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는 지역별 통계를 확인할 수 없다. 이에 지역별고용조사를 통해 종사상 지위에 따른 서울지역의 취약계층 노동자(임시직·일용직)의 규모와 임금 및 노동시간을 살펴본다. 참고로 서울지역은 응답자가 일하는 사업체 소재지 기준이 아닌 응답자의 행정구역 기준이다.

### □ 상용직은 증가, 임시일용직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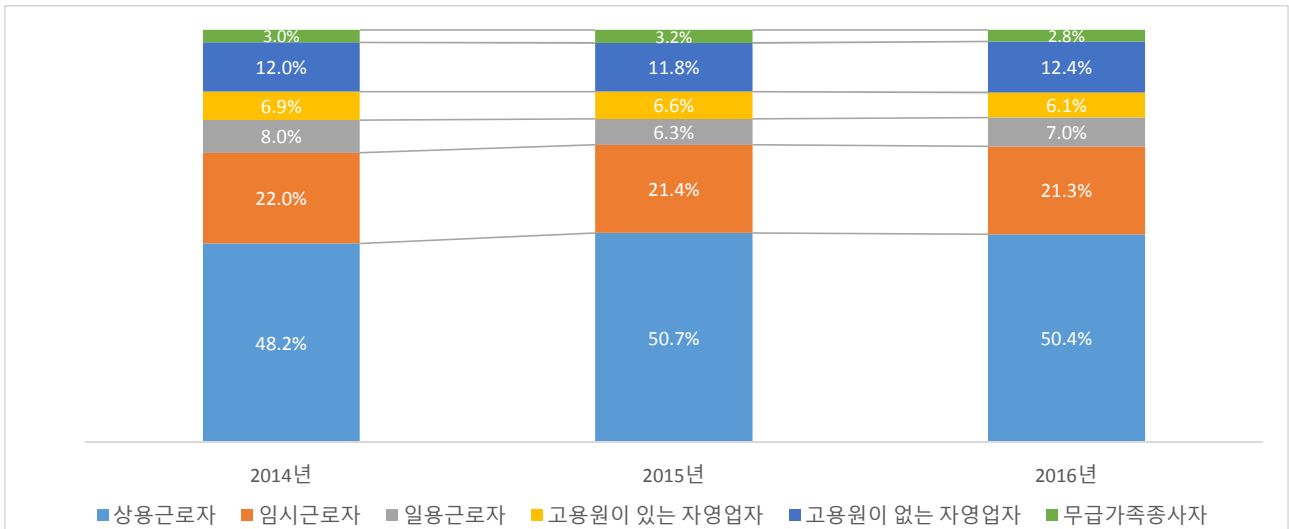
- 2016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 의하면, 서울시 취업자의 약 절반이 상용직(50.4%)이며, 임시직(21.3%) 및 일용직(7.0%)이 28.3%임. 취업자중 임금노동자는 78.7%이며 비임금노동자는 21.3%임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상용직은 2014년에 비해 규모와 비율이 증가함. 규모는 2014년 248만 9천명에서 2016년 259만 9천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비율도 2014년 48.2%에서 2016년 50.4%로 증가함
- 이에 반해 취약노동자인 임시일용직의 규모와 비율은 감소함. 규모는 2014년 154만 5천명에서 2016년 146만 명으로 감소하였으며, 비율도 2014년 30.0%에서 2016년 28.3%로 감소함

【그림 III-4】 서울지역 종사상지위별 규모 (단위 : 명)



자료 : 통계청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각 년도],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

【그림 III-5】 서울지역 종사상지위별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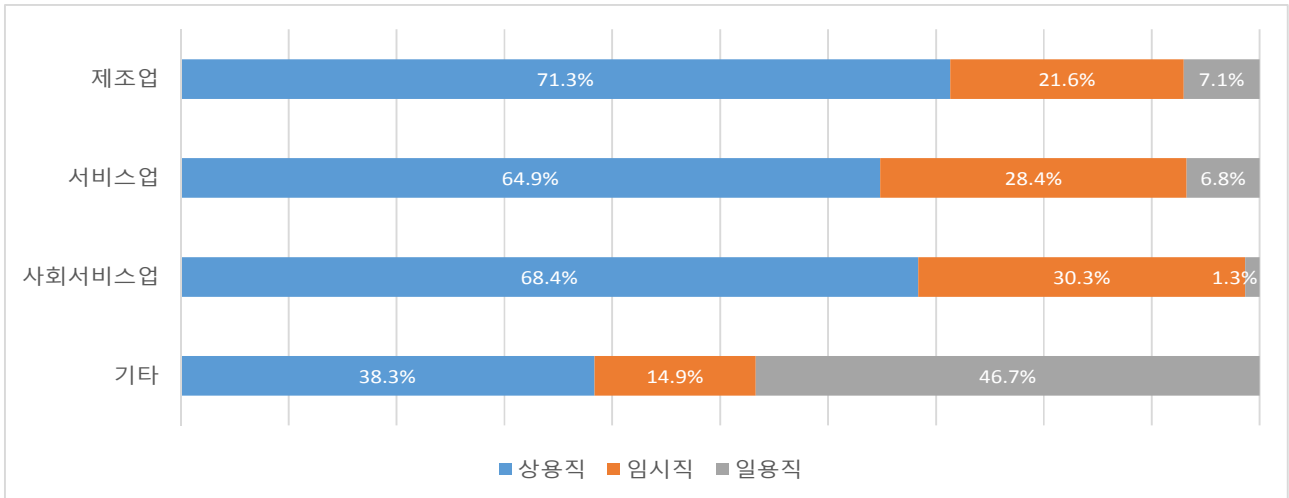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각 년도],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

□ 임시일용직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서비스업

- 2016년 기준으로 서울시 제조업, 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중에서 임시일용직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서비스업으로 35.1%였으며, 사회서비스업 31.6%, 제조업 28.7%였음
- 상용직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제조업으로 71.3%였으며, 사회서비스업 68.4%, 서비스업 64.9%였음
- 다른 산업에 비해 상용직 비중이 낮고, 임시일용직 비중은 높은 서비스업이 제조업과 사회서비스업보다 고용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음

【그림 III-6】 산업별 종사자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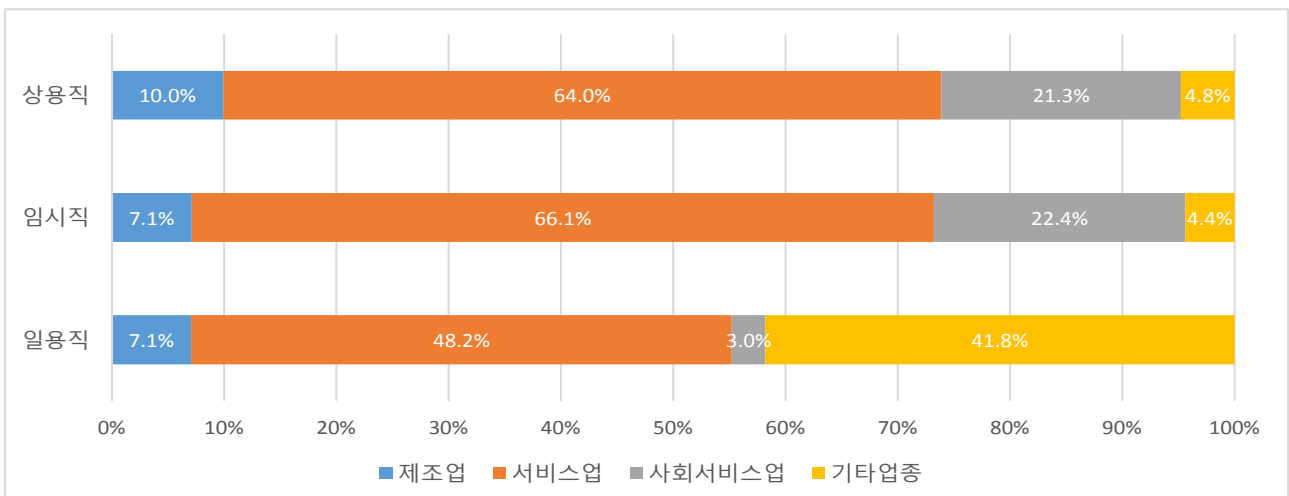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2016],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

주 :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개정)를 기준으로 제조업은 C.제조업이며, 서비스업은 E.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G.도매 및 소매업, H.운수업, I.숙박및음식점업, J.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K.금융및보험업, L.부동산업및임대업, M.전문,과학 및기술서비스업, N.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R.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S.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이며, 사회서비스업은 O.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P.교육서비스업, Q.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이고, 기타는 그 밖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임

□ 서비스 및 사회서비스업에 절대 다수가 종사

- 서울시 임금노동자의 산업별 비중을 보면, 제조업 8.9%, 서비스업 63.1%, 사회서비스업 20.0%, 기타업종 7.9%임. 이에 따라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모두 서비스업에서의 비중이 높음
- 상용직의 산업별 비중을 보면, 서비스업 노동자가 64.0%로 가장 많고, 이어 사회서비스업 21.3%, 제조업 10.0%임
- 임시직의 경우, 상용직과 마찬가지로 서비스업 노동자가 66.1%로 가장 많고, 이어 사회서비스업 22.4%, 제조업 7.1%였음
- 일용직의 경우, 서비스업 노동자가 48.2%, 기타업종 41.8%, 제조업 7.1%, 사회서비스업 3.0%순이었음

【그림 III-7】 종사상지위별 산업 분포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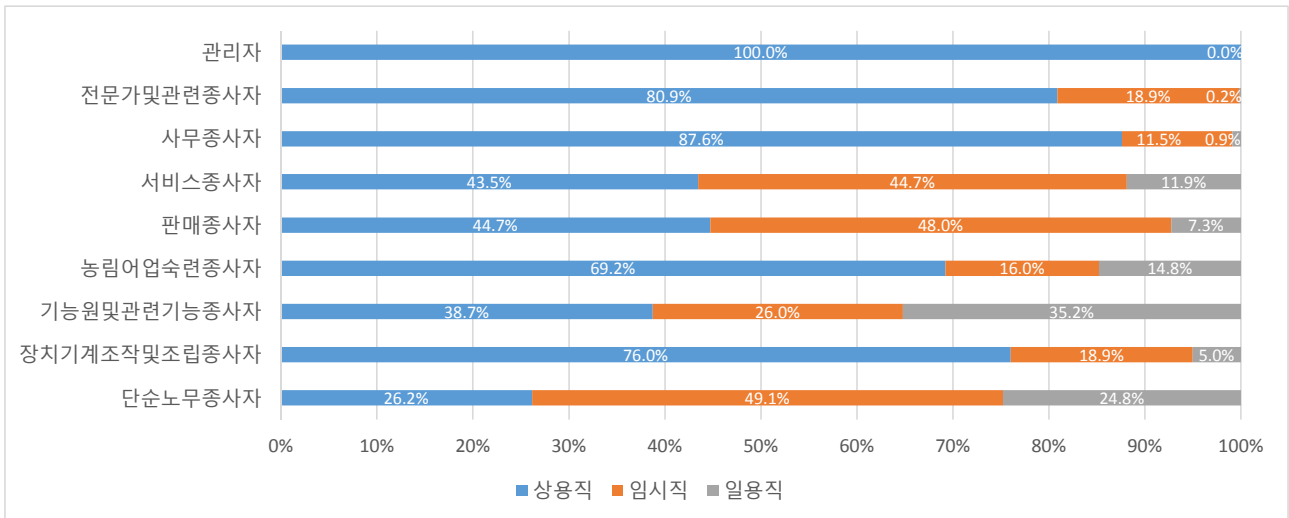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2016],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

□ 단순노무종사자, 기능원 및 기능 관련 기능종사자 순으로 임시일용직 비중 높음

- 2016년 기준 서울시에서 직업 내 임시일용직 비중이 가장 높은 직업군은 단순노무종사자 (73.8%)이며, 그 뒤를 이어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61.3%, 서비스종사자 56.5%, 판매종사자 55.3%순임

【그림 III-8】 직업별 종사자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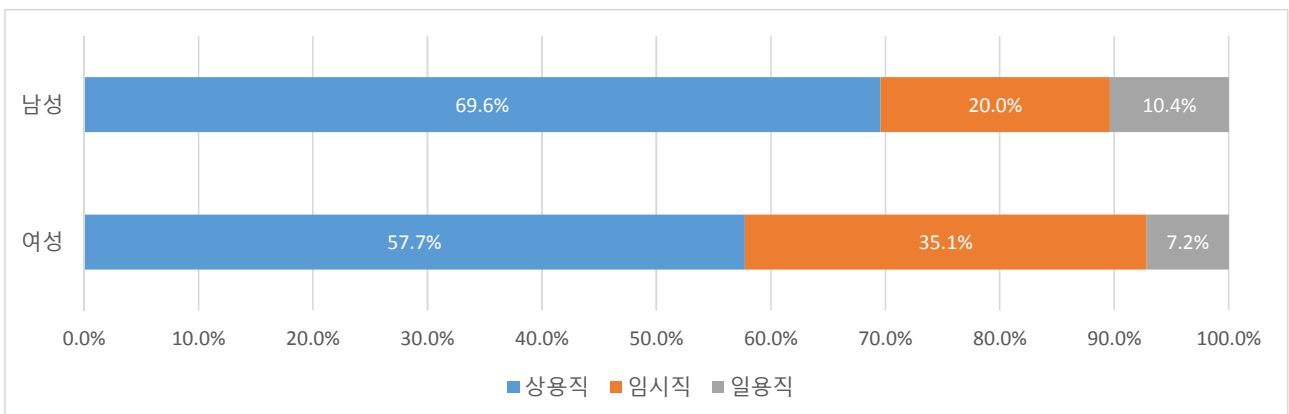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2016],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

□ 여성의 임시일용직 비중 42.3%

- 성별에 따른 취약계층 노동자를 살펴보면, 2016년 기준으로 남성의 30.4%가 임시일용직인데 반해, 여성은 42.4%로 여성의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았음
- 다만, 여성의 임시일용직 비율은 다소 감소하고 있음. 2014년 여성 임시일용직 비중은 45.6%에서 2015년 42.5%, 2016년 42.3%로 소폭 감소하고 있음. 남성의 임시일용직 비중은 2014년 32.0%에서 2015년 29.1%로 감소하였다가 2016년 30.4%로 증가함

【그림 III-9】 성별 종사자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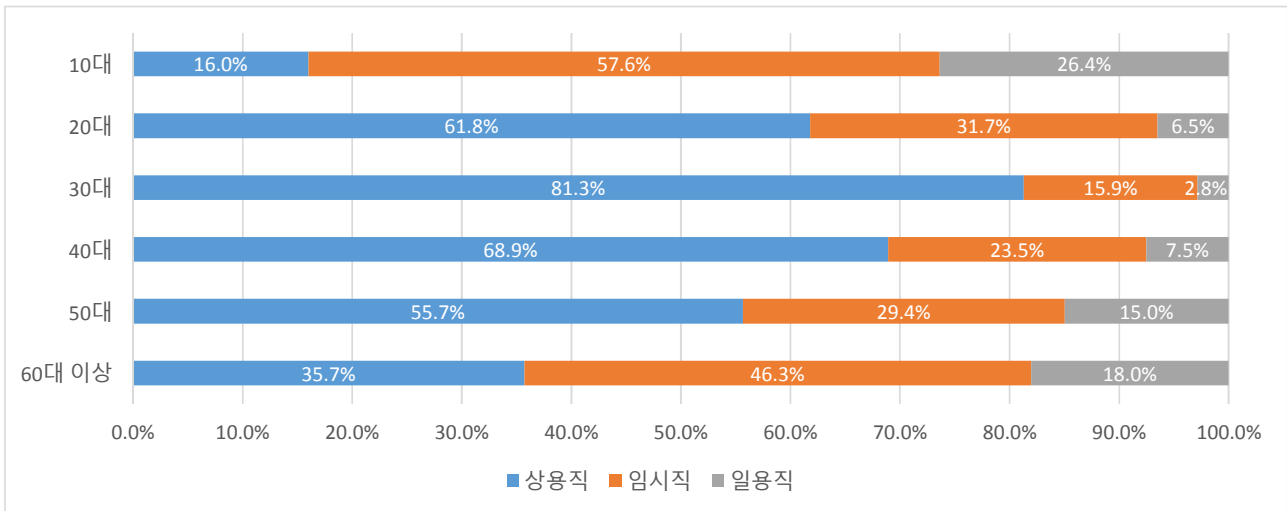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2016],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

□ 10대와 60대 이상에서 임시일용직 비중 높음

- 연령에 따른 취약계층 노동자를 살펴보면, 2016년 기준으로 10대 임금노동자의 84%가 임시일용직이었으며, 60대 이상은 64.3%, 50대 44.3%, 20대 38.2%가 임시일용직이었음. 이에 반해, 30대는 18.7%, 40대는 31.1%만이 임시일용직이었음. 10대 청소년과 60대 이상 노령층에서의 취약노동자 비율이 높았음

■ 그림 III-10 ■ 연령별 종사자 비율 (단위 : %)



자료 : 통계청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2016],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

### 3. 취약 노동자와 불평등

□ 2016년 기준 서울시 최저임금 미만자 비중 11.6%

- 2016년 기준 서울시 임금노동자 시간당 평균임금은 14,352원이며, 최저임금 6,030원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은 11.6%로 나타남
- 최저임금 미만자 비중은 2014년 9.5%에서 2015년 9.8%, 2016년 11.6%로 증가함. 전체 임금노동자의 평균임금 증가율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게 나타나면서 최저임금 미만율도 증가함.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은 7.5%인데 비해, 서울시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평균임금 증가율은 4.7%였음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 대책과 함께 근로감독 강화를 통해 최저임금 미만율을 제고할 필요

■ 표 III-1 ■ 서울지역 임금노동자 평균임금과 최저임금 미만 비율 (단위 : 원, %)

	2014년	2015년	2016년	평균증가율
시간당 최저임금	5,210 (7.2%)	5,580 (7.1%)	6,030 (8.1%)	7.5%
시간당 평균임금	13,104	13,746 (4.9%)	14,352 (4.4%)	4.7%
최저임금 미만자 비중	9.5%	9.8%	11.6%	

자료 : 통계청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각 년도],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

주 : 1) 취업자중 임금노동자만 해당

2)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월평균임금÷(주된 일의 주당노동시간×4.3주)

3) ( )는 전년대비 증가율

4) 최저임금 미만자 비중은 임금노동자 중 시간당 임금이 해당연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의 비중

□ **성별, 연령별, 종사상 지위별 최저임금 미만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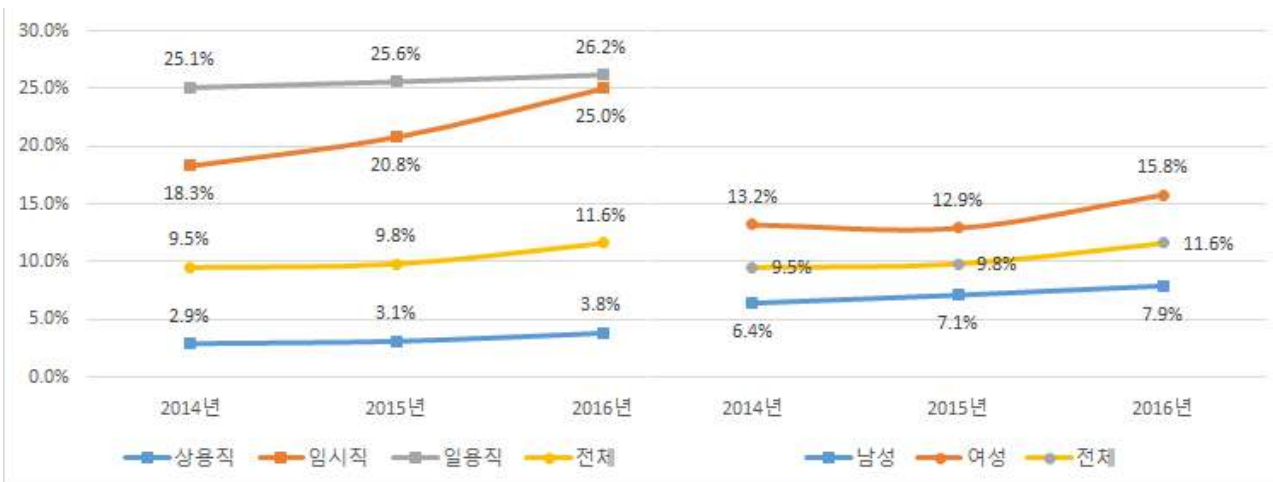
- 종사상 지위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 비율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상용직의 3.8%만이 최저임금 미만자인데 반해, 임시직은 25.0%, 일용직은 26.2%로, 취약계층 노동자의 최저임금 미만 비중이 높게 나타남. 모든 지위에서 2014년보다 2016년에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증가함. 이는 앞의 분석과 같이 상용직 및 임시일용직 여부와 상관없이 평균임금 증가율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기 때문임
- 성별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 비중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2016년 기준 남성 임금노동자의 7.9%가 최저임금 미만이지만, 여성은 15.8%로 2배 가까이 높았음. 2014년에 비해 2016년에 남성, 여성 모두 최저임금 미만 비중이 증가함
- 연령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 비중은 10대와 6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남. 2016년 기준 10대 임금노동자의 최저임금 미만 비중은 46.4%, 60대 이상은 36.2%였음. 이어 50대 12.5%, 20대 10.9%, 40대 6.7%, 30대 3.8%였음. 청소년과 노년층의 최저임금 미만 비중이 높았음. 또한 전 연령대에서 2014년보다 2016년의 최저임금 미만 비중이 증가함

【표 III-2】 서울지역 임금노동자의 종사상지위별, 성별, 연령별 최저임금 미만 비율 (단위 : 명, %)

		2014년		2015년		2016년	
종사상 지위별	상용직	71,068	(2.9%)	79,238	(3.1%)	97,000	(3.8%)
	임시직	205,961	(18.3%)	227,821	(20.8%)	272,630	(25.0%)
	일용직	103,131	(25.1%)	82,770	(25.6%)	94,566	(26.2%)
성별	남성	137,681	(6.4%)	153,399	(7.1%)	169,365	(7.9%)
	여성	242,479	(13.2%)	236,429	(12.9%)	294,830	(15.8%)
연령별	10대	15,318	(37.7%)	10,297	(32.7%)	21,348	(46.4%)
	20대	68,809	(8.8%)	84,398	(10.9%)	85,002	(10.9%)
	30대	28,262	(2.6%)	36,424	(3.4%)	39,445	(3.8%)
	40대	59,668	(6.3%)	50,136	(5.3%)	63,478	(6.7%)
	50대	87,975	(11.5%)	79,127	(10.3%)	96,824	(12.5%)
	60대 이상	120,128	(30.5%)	129,447	(32.3%)	158,098	(36.2%)
전체		380,160	(9.5%)	389,828	(9.8%)	464,195	(11.6%)

자료 : 통계청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각 년도],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

【그림 III-11】 서울지역 임금노동자의 종사상지위별, 성별 최저임금 미만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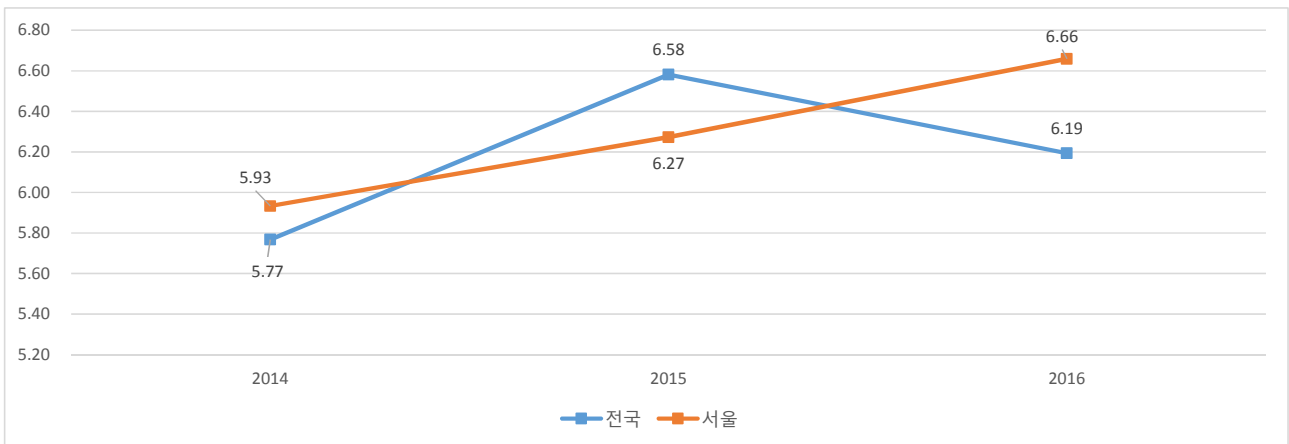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각 년도],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

□ 전국은 임금 5분위 배율이 감소하나, 서울지역은 증가

- 임금 5분위 배율에 의한 임금 불평등 수준을 보면, 2016년 기준 전국은 임금 수준 상·하위간 차이가 6.19배이나, 서울은 6.66배로 더 큰 격차를 보임. 전국보다 서울이 임금불평등 수준이 높음. 이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위 20%의 소득수준이 높기 때문임. 2016년 기준 전국 임금 노동자의 상위 20% 평균임금은 484만원이나, 서울 상위 20%의 평균임금은 562만원으로 차이가 컸음. 하위 20%의 평균임금은 전국 78만원, 서울 84만원으로 차이가 작았음
-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국은 임금 수준 상·하위간 격차가 상승하였다가 감소하고 있으나, 서울은 확대되고 있음. 전국은 2014년 상·하위간 임금수준 차이가 5.77배에서 2015년 6.58배, 2016년 6.19배로 변화함. 이에 반해 서울은 2014년 5.93배에서 2015년 6.27배, 그리고 2016년에는 6.66배로 확대되고 있어 임금불평등 정도가 심화됨

-

■그림 III-12 ■ 전국, 서울의 임금 5분위 배율 (단위 :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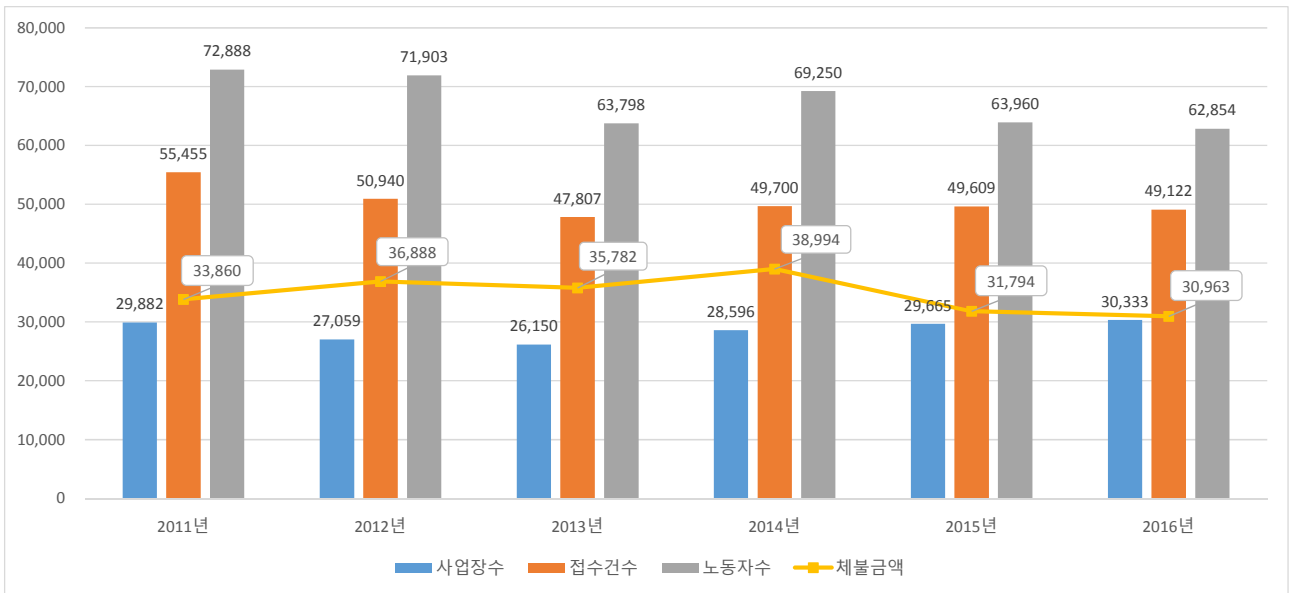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각 년도],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

주 : 임금 5분위 배율은 취업자중 임금노동자의 상위 20%계층 평균임금 / 하위 20%계층 평균임금

□ 서울의 임금체불 노동자는 57,955명, 체불임금액은 2,955억원(2016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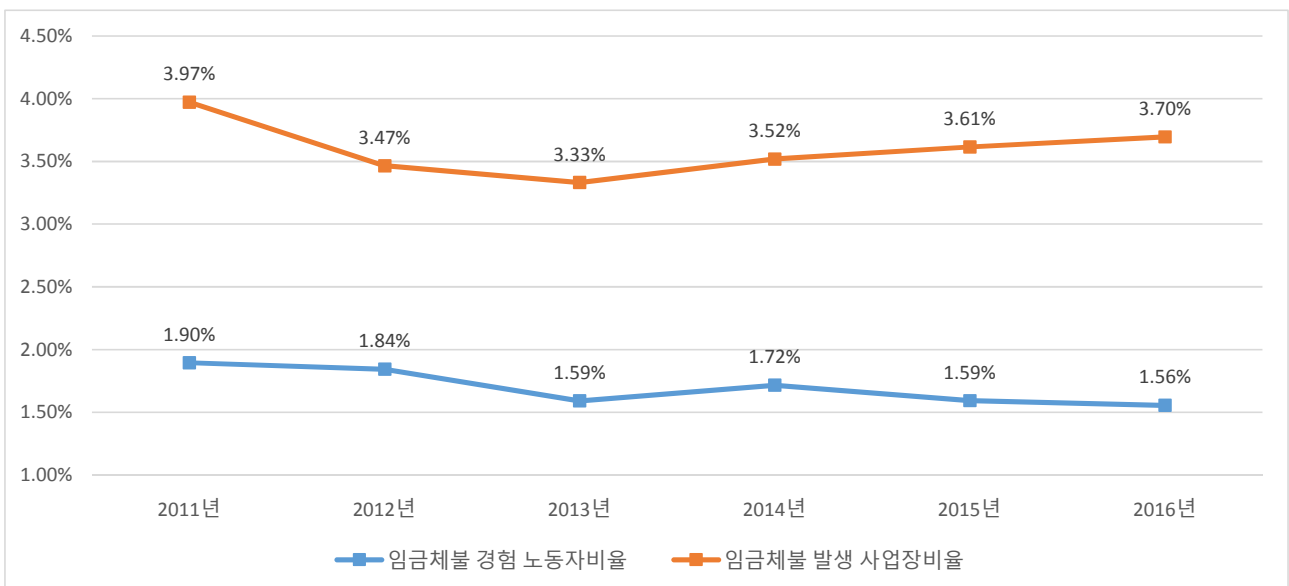
- 서울지역 고용노동청의 임금체불 통계자료를 통해 서울의 임금체불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서울 전체 임금노동자 403만 6천명 중 1.56%가 임금체불을 경험하였으며, 서울 전체 82만744개 사업체 중 3.70%의 사업체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함
- 2011년과 비교하여 2016년 임금체불 접수건수, 노동자수, 체불금액은 모두 감소함. 이에 반해, 임금체불 발생 사업장 수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감소하다가, 2014년부터 다시 증가추세임
- 서울지역 전체 임금노동자 중 임금체불 경험 노동자 비율은 2011년 1.90%에서 2016년 1.56%로 감소함. 이에 반해 서울지역 전체 사업체 중 임금체불 발생 사업장 비율은 2011년 3.97%에서 2013년 3.33%까지 하락하였다가 2014년부터 다시 상승하여 2016년 3.70%까지 상승함
- 구별로 살펴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할지역(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서초구)과 강남지청 관할지역(강남구)의 임금체불이 높았음

【그림 III-13】 서울지역 연도별 임금체불 현황 (단위 : 개, 건, 명, 천만원)



자료 : 서울지역 고용노동청(정보공개청구자료 재가공)

【그림 III-14】 서울지역 임금체불 경험자 비율 및 임금체불 발생 사업장 비율 (단위 : %)



자료 : 서울지역 고용노동청(정보공개청구자료 재가공)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년도], 국가통계포털(KOSIS)

주 : 임금체불 경험 노동자 비율 = 임금체불 노동자수 / 임금노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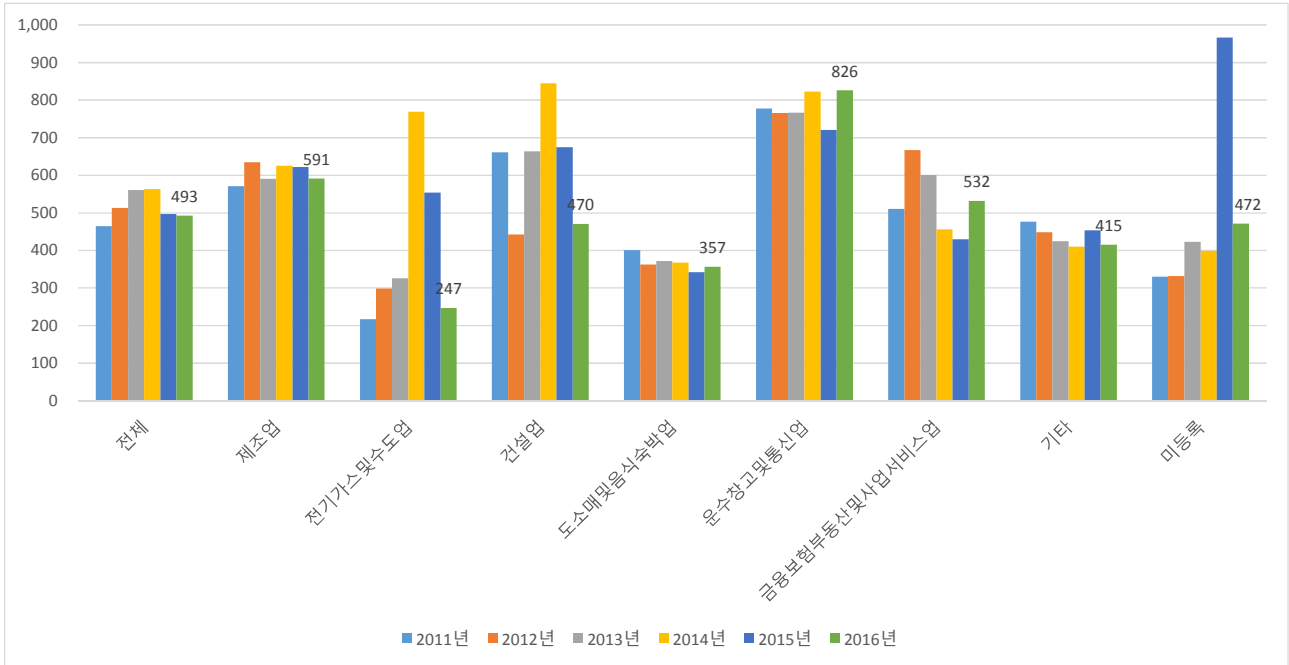
임금체불 발생 사업장 비율 = 임금체불 사업장수 / 사업체수

□ 1인당 평균 임금체불액 493만원, 운수창고통신업 826만원

- 2016년 기준, 1인당 평균 임금체불액은 493만원이었으며, 운수창고 및 통신업이 826만원으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제조업 591만원,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회서비스업 532만원, 업종 미등록 472만원 순이었음
- 산업별 임금체불액 비중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체불액이 발생한 업종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22.0%를 차지함. 다음으로 운수창고 및 통신업 20.3%,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회서비스업 19.7%, 건설업 17.3% 순이었음. 이들 4개 업종이 전체 임

금체불액의 79.4%를 차지하여 임금체불액의 절대 다수가 4개 업종에서 발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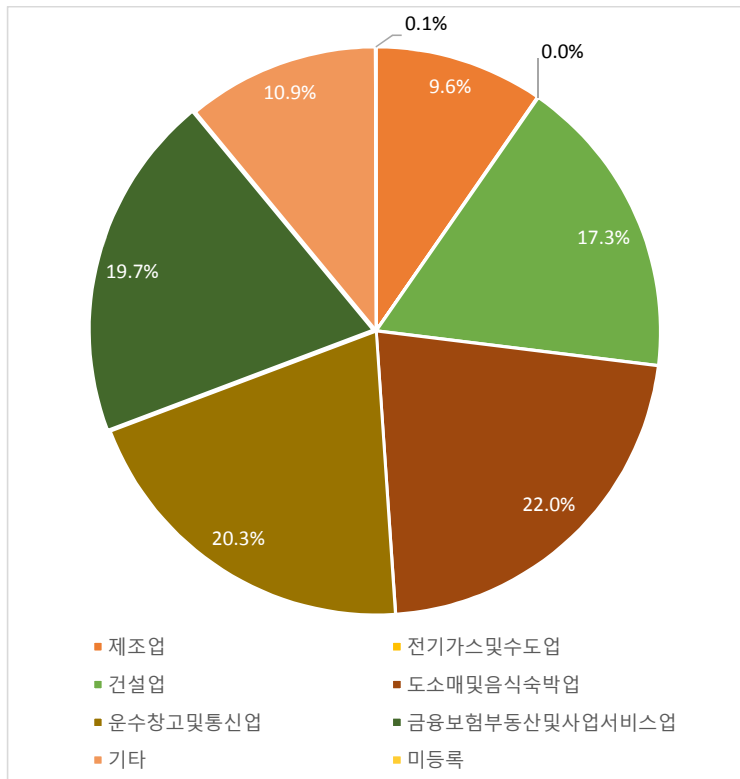
■ 그림 III-15 ■ 산업별 1인당 체불임금액 (단위 : 만원)



자료 : 서울지역 고용노동청(정보공개청구자료 재가공)

주 : 산업별 1인당 체불임금액 = 산업별 총 체불임금액 / 산업별 체임금체불 경험 노동자 수

■ 그림 III-16 ■ 산업별 체불금액 비중 : 2016년 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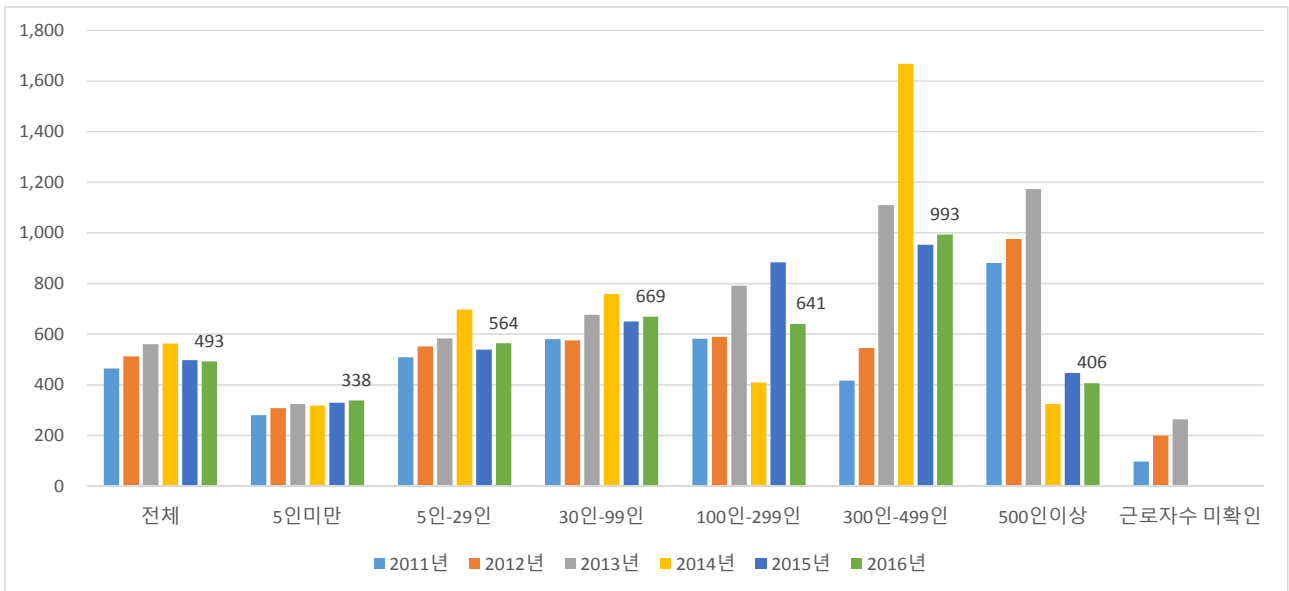


자료 : 서울지역 고용노동청(정보공개청구자료 재가공)

□ 임금체불 경험자의 90% 이상은 1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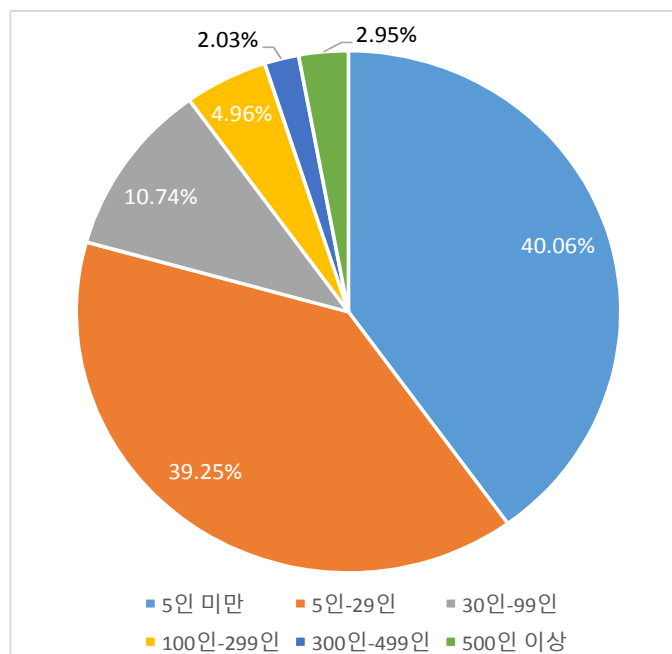
-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임금체불 경험 노동자의 40.1%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으며, 39.3%는 5인~29인 이하 사업장 소속, 10.7%는 30인~99인 이하 사업장 소속이었음. 전체적으로 10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의 비중이 90.1%로 임금체불 경험 노동자 절대 다수는 중소기업 사업장 소속이었음
- 사업장 규모별 1인당 체불임금액은 2016년 기준 300인~499인 규모에서 993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인~99인 669만원, 100인~299인 641만원, 5인~29인 564만원 순이었음

【그림 III-17】 사업장 규모별 1인당 체불임금액 (단위 : 만원)



자료 : 서울지역 고용노동청(정보공개청구자료 재가공)  
 주 : 규모별 1인당 체불임금액 = 규모별 총 체불임금액 / 규모별 체임금체불 경험 노동자 수

【그림 III-18】 사업장 규모별 체불임금 근로자 비중 : 2016년 기준 (단위 : %)



자료 : 서울지역 고용노동청(정보공개청구자료 재가공)